

2022.01.~2022.12

완주문화원탁회의  
: 연결 , 그리고 함께



WANJU CULTURA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완주문화원탁회의:  
연결, 그리고 함께

2022.01.

2022.12.

## 2022 완주문화원탁회의

완주문화원탁회의	8
<b>주제별 원탁회의 들여다보기</b>	
장애인문화예술	11
_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장애예술, 그리고 진짜 마음	
문화기획자·활동가	23
_ 문화기획자·활동가 직접 묻고 답하다 : 지역문화기획·활동의 한계와 의미 사이에서	
문화예술기관시설	35
_ 완주문화예술소식과 만나다 <안녕! 완주문화>	
문화예술 성평등(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45
_ 문화예술다리미 : 11번의 만남, 6편의 글	
공유·교류 원탁회의	57
_ 완주문화예술 어떻게?	

## 2022 완주문화원탁회의 기록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이 '나와 너' 그리고 '우리'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한다	이승희	63
장애인문화예술 활성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이승희	75
자신의 세계를 우리의 세계로 확장하고, 우리의 세계를 나의 세계로 살아가는 이들	이승희	95
완주문화예술 통합 모바일 매거진 <안녕! 완주문화> 이야기	이승희	111
평평한 문화예술을 위한 작지만 확실한 실천	이승희	119
각자의 고민이 만나 새로운 흐름으로	이소정	131
서로를 통해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들	이소정	141
미투 이후, 우리는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승희	151
알록달록 네 가지 주제로 함께 만들어가는 완주문화원탁회의	이승희	171

와  
주  
다  
리  
다  
학  
원  
원  
장  
의  
연  
결  
그  
리  
고  
함  
께

## 완주문화원탁회의?

2021년부터 문화자치 생태계 조성,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완주문화원탁회의’는 문화예술현장 관계자와 민간 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만나 완주군 문화예술 주요 이슈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의 장’으로 2022년에는 문화예술 기관·시설, 문화기획자·활동가, 문화예술 성평등, 장애인문화예술 등의 주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완주문화예술 현장을 중심으로  
문화 거버넌스 주체를 발굴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 문화예술 현장 관계자 중심으로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완주문화 예술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지역 내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주제별 원탁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협력 활동 추진

문화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과 문화예술인이  
직접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고,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 갑니다.

- 정책과제별 원탁회의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문화 거버넌스 추진체계 마련
- 원탁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재단 사업, 완주군 문화예술 정책과 연계하여 문화자치 실현 방안 모색

주제별 원탁회의 들여다보기

장애인 문화예술

# 장애인문화예술

## 논의목적

- 2022년 5월 출범한 새 정부 문화정책 및 2021년 12월 제정된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관련하여 정책 대응 필요
- 완주군 장애인 지원 기관·시설·단체 등 현장 중심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 개요

- 운영기간 : 2022.5. ~ 12.
- 운영횟수 : 총 12회  
    개별간담회 9회, 워크숍 1회, 자료조사 1회, 원탁회의 1회
- 장 소 : 완주군 일원
- 참여기관·시설·단체 : 장애인지원기관·시설·단체 8곳  
    늘푸른그룹홈, 예수재활원, 완주군수어통역센터,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완주군평생교육아카데미, 은혜의동산, 한국장애인부모회 완주군지부  
    한사랑(아리아리 공동체)

## 주요 내용

- 장애인 문화예술 워크숍
-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기초 자료 조사
- 워크숍 및 자료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과제 발굴

## 1. 장애인지원기관·시설·단체 개별간담회

- 기간 : 2022.5.12.~5.19
- 장소 : 완주군 장애인지원기관·시설·단체 사무실
- 횟수 : 10회
- 참여기관·시설·단체(총10개)  
    늘푸른그룹홈, 다정다감협동조합, 시각장애인연합회 완주군지부  
    예수재활원, 완주군수어통역센터,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완주군평생교육아카데미, 은혜의동산  
    한국장애인부모회 완주군지부, 한사랑
- 주요 내용
  - 기관·시설·단체별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현황 공유
  - 완주문화원탁회의의 사업목적 및 운영방향 공유
  - :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내용 공유,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 방안, 협력사업 제안 등
  - 2022년 활동 주제 협의 : 장애인 당사자 의견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과제 도출, 협력사업 모색

---

## 2. 장애인 문화예술 워크숍

- 일시 : 2022.7.12.(화) 14:00~17:00
- 장소 :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 참여인원 : 총 36명  
장애인복지·교육 관련 기관·시설·단체 관계자, 문화예술기관·시설 관계자, 완주군 사회복지과, 장애인 당사자 등
- 내용
  - [특강] ‘강남장애인복지관 사례 중심으로 보는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방향’  
강사 : 송보민 (강남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지원팀장)
  - [토론]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추진 방향 모색’  
발제 : 송은정 (완주문화재단 사무국장) / 토론 : 워크숍 참여자

---

## 3.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기초 자료 조사

- 조사기간 : 2022.8~12.(5개월)
- 응답주체
  - 장애인 당사자(18명) :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 장애인 지원기관·시설·단체(8곳)  
: 장애인 문화예술 원탁회의 참여기관·시설·단체
  - 문화예술기관·시설·단체(16곳)  
: 완주군 문화관광과 산하 문화예술기관·시설·단체
- 주요내용  
: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현황,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과제 도출

---

## 4. 장애인문화예술 원탁회의

- 일시 : 2022.12.21.(수) 10:00~12:00
- 장소 :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 참석자 : 총 15명  
장애인 문화예술 원탁회의 참여기관·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완주문화재단 관계자
- 논의내용
  -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기초 자료 조사 결과 공유
  -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과제 논의
  - 2023년 협력 활동 제안

---

## 5. 정책과제 발굴 및 사업 제안

- 장애인 당사자의 문화예술 경험 확장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지역 내 장애에 대한 인식 및 이해 확장 필요  
: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계자, 가족, 활동 보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 관점의 프로그램 마련
- 장애유형을 반영한 전문교육 체계 마련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보조인, 무장애 시설·서비스 제공 필요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운영 시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의 전환 필요
-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의 네트워크 활동 지원 필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장애예술,  
그리고 진짜 마음



**직접 들어봤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장애인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b>문화예술 활동 욕구</b>	- 문화예술 활동을 계속 하고 싶나요? -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b>문화예술 전문교육 참여 욕구</b>	- 문화예술 전문교육(심화과정, 자격과정, 학위과정 등)에 참여해 본 적 있나요? - 전문교육에 참여해 보고 싶나요? -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b>전문예술인 활동 욕구</b>	- 문화예술을 직업으로 하고 싶나요? -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주문화재단  
Institute for Arts & Culture

원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기초 자료조사  
장애인 인터뷰 중에서

**문화예술,  
계속 하고 싶나요?**

**네!!**

"견문도 넓히고 싶고,  
지적 수준도 넓히고 싶어요.  
성격이 새로운 걸 좋아하거든요.  
다양하게 해 보고 싶어요."

"잘못해도 한번 도전해서  
'되면 되는 거고, 안되면 안되는 거다' 하고 해 보고 싶어요.  
경험이고 다 좋은 것 같아요.  
안 해 보면 못하니까, 해 보고 싶어요."

## 문화예술, 왜 계속하고 싶냐면요!

재미있어요!

"연극이 떨리고 불안해요.  
대사 잊어버릴까 봐요.  
그런데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게  
부끄럽고 자신도 없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회복되고  
재밌게 하는 거 같아요."

## 문화예술, 왜 계속하고 싶냐면요!

내가  
다 했다!

"집에 가만히 있느니  
손이라도 움직여서 뭐라도 만들면  
기분도 다르니까요."

내 것이 생기는 것도 좋지만, 만든 걸 보는 것도 좋아요.  
**'내가 다 했다' 하는 기분도 있으니까요.**

"그냥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멍 때리면서 그림 그리는 것이요.  
시간이 가면서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마음이 편안해져요.  
성취감도 있고요."

## 문화예술 전문교육? 하고는 싶은데요...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른 데 갔어요

"보컬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우리에게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른 데 갔어요."

하고 싶었는데  
**가르쳐 주기 어렵다고 해서요."**

## 문화예술 전문교육? 하고는 싶은데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대학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비싸서 못했어요.** 학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유학 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외국에 대한 동경을 많이 했었는데 돈이 있지 않는 한 안 가요.  
가는 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거기 가도 돈 벌어야 하니까  
일하느라 그림을 못 그릴 것 같아서요."**

## 문화예술 전문교육? 하고는 싶은데요...

그 꿈은  
못 이룰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중학교 선생님이 혼자 잘 그리려고  
연습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엔 삐뚤삐뚤 그려도 괜찮은데,  
삐뚤삐뚤 그리기 싫으면 지우고 다시 그리라고 했어요.  
**미술로 대학에 갈 수 있다면? 그 꿈은 못 이룰 것 같아요.**  
공부 못하면 꿈을 못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 문화예술이 '직업'이 된다면?

다시,  
꿈을 꿉니다

"안되더라도 해 보고 싶어요.  
그냥 되든 안 되든 간에 도전해 보고 싶어요."

"장애예술 아트페어에 참여하면서  
'작가'라는 명칭이 생겼어요.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좋으니 계속 그리고 싶고,  
전시해서 그림을 팔아보고도 싶고 그래요.**  
다른 길로는 수익이 없으니까요."

### 당사자의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

-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경험 확대**  
먹어보지 않은 음식의 맛을 모르는 것처럼,  
경험해 보지 않은 문화예술 활동을 선택하기는 어려워요.
- 2. 교수자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  
교수자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경험의 질이 달라져요.
- 3.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와 장애인복지기관시설에서 대부분의 문화예술경험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춘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은 선택과 자기표현, 자신만의 고유성을  
찾는 중요한 지점이에요.

### 당사자의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

- 4. 무장애 시설(배리어프리 시설) 구축**  
지역의 문화예술기관·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공간이에요. 경사로, 엘리베이터, 자동문, 휠체어 좌석, 점자  
표식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가 필요해요.
- 5.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유형에 따라 혼자서 활동이 어렵거나 통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활동보조인, 수어통역사 등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가 필요해요.
- 6. 장애에 대한 이해, 인식 확산**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창작, 발표할 수 있도록 지역 안에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별 원탁회의 들여다보기

문화기획자·활동가

## 문화기획자·활동가

### 논의목적

- 문화기획자·활동가 인터뷰를 통한 지역 내 문화기획자·활동가 발굴 및 아카이빙
- 문화기획자·활동가 간의 교류, 협력 활동 모색 및 실행을 통한 지역 내 문화기획 활동 공유, 네트워크 형성

### 개요

- 운영기간 : 2022.3. ~ 11.
- 운영횟수 : 총 13회  
    기획단 회의 3회, 전체 네트워크 모임 4회  
    네트워크 소모임 6회
- 장 소 : 완주군 일원
- 참여인원 : 총 17명(2021년 원탁회의 참여자 10명, 신규참여자 7명)

### 주요 내용

- 기획단 회의를 통한 원탁회의의 활동 계획 수립
- 지역 문화기획자·활동가 인터뷰 및 아카이빙
- 문화기획자·활동가 소모임 활동을 통한 현장 중심의 이슈 발굴, 정책·사업 제안

## 1. 원탁회의 기획단 운영

- 기간 : 2022.3~11
- 횟수 : 3회
- 기획단 : 김다은, 김성수, 김지영, 김태진, 이자영, 한송지(총 6명)
- 주요 내용
  - 1차 회의 : 문화기획자·활동가 원탁회의 2021년 활동 평가 및 2022년 활동 방향 논의
  - 2차 회의 : 문화기획자·활동가 원탁회의 신규참여자 인터뷰 및 네트워크 모임 운영 방안 협의
  - 3차 회의 : 네트워크 소모임 활동 평가 및 전체 네트워크 모임 기획

## 2. 원탁회의(네트워크 모임) 운영

### 1) 전체 네트워크 모임

- 운영 기간 : 2022.5.~11.
- 운영 횟수 : 4회
- 내용
  - 원탁회의 참여자 활동 및 완주군 문화예술 현장 이슈 공유
  - 원탁회의의 활동 방향 논의, 사업 평가
- 상반기 네트워크 모임 세부 내용
  - 일시 : 2022.5.30.(월) 14:00~16:00, 2022.5.31.(화) 10:00~12:00
  - 장소 :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 횡수 : 2회
- 참여인원 : 총 16명
- 논의 내용
  - 참여자 상호 교류 및 2021 원탁회의 활동 공유
  - 2022 원탁회의 활동 방향 논의
  - 소모임 네트워크 활동 제안 및 논의 주제 협의
- 하반기 네트워크 모임 세부 내용
  - 일시 : 2022.11.29.(화) 10:00~12:00, 2022.11.30.(수) 10:00~12:00
  - 장소 :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 횡수 : 2회
  - 참여인원 : 총 15명
  - 논의 내용
    - 네트워크 소모임 주제별 논의 결과 공유
    - 현안 공유
      - :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활동의 의미
    - 문화기획자·활동가로서의 전환점과 고민, 대안
    - 2022년 사업 평가 및 2023년 활동 제안

- 2) 네트워크 소모임
  - 기간 : 2022.7.~10.
  - 횡수 : 6회
  - 내용
    - 원탁회의 참여자 상호 활동 공유, 신규참여자 인터뷰
    - 문화예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제 논의
  - 네트워크 소모임 세부 내용
    - 1차 네트워크 소모임
      - 횡수 : 4회
      - 참여인원 : 총 12명
      - 논의내용 : 문화예술 현장 이슈 공유, 신규 참여자 인터뷰, 문화예술 현장 중심의 논의 주제 협의
    - 2차 네트워크 소모임
      - 횡수 : 4회
      - 참여인원 : 총 13명
      - 논의내용
        - : 공동체·단체 중심 문화예술 활동의 한계 및 대안
        - : 문화기획자·활동가의 자생력 확보 방안
  - 신규 참여자 인터뷰 기사 작성 및 배포
    - 횡수 : 4회
    - 인터뷰 방법
      - : 1차 네트워크 소모임을 통해 그룹별 인터뷰 진행, 기사 작성
    - 인터뷰 기사 배포 : 재단 블로그 및 페이스북 업로드

### 3. 정책과제 발굴 및 사업 제안

- 문화기획자·활동가들이 지원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자생력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필요
- 공동체·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원사업 체계를 개인·프로젝트 단위로 확대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활동가들의 활동 범위 확장 필요
- 완주문화재단 예술인 창작지원사업 등과 같이 지원사업 내 사업 기획 및 총괄 운영,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기획자·활동가들의 인건비 책정 필요
-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이 농한기에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만큼, 12~3월 사이 농한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 체계 마련 필요
- 예술인 복지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기획자·활동가들의 건강 등에 대한 복지 정책·프로그램 필요

## 문화기획자·활동가 직접 묻고 답하다 : 지역문화기획·활동의 한계와 의미 사이에서



##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다

01

###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동체가 발달한 원주, 그래서일까요?  
대부분의 지원사업 역시 공동체 또는 단체가 아니면,  
지원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공동체나 단체로 지원해도 결국 기획자·활동가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공동체나 단체 만이 아니라 개인도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02

### 기획자· 활동가의 인건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부터 사업 운영,  
결과보고까지 다양한 업무가 수반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기획자의 인건비를  
사업비 내에서 책정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 예술인 지원사업을 보면 작품 제작에 대한 '아티스트 페이'를  
책정하고 있는데요.  
기획자·활동가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에 대한 인건비 책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다

03

### 이런 고민도 있어요

- 새정부 문화예술 정책과 민선 8기 문화정책 등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아요.
-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내가 문화기획자·  
활동가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지만 어떻게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 낼지 고민이 많아요.

04

### 문화기획자 활동가 네트워크

- 완주군 면적이 넓다 보니 다른 지역과의 교류·소통이 안되는  
한계가 있어요. 지역별 장소나 공간, 활동 등을 계속 공유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 혼자 활동하다 보면 버거울 때가 많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거나 방향을 찾아가는  
자리로 계속되길 바래요.

## 인터뷰를 통해 만난 문화기획자·활동가들!



1

자칭 대왕 오지라퍼  
백남경



2

주민들과 문화로 소통하는  
이명숙



3

글로 사람들을 만나는  
작가·기획자  
이정지



4

소리를 파는 작은 가게  
'소리점방'  
김민경



## 우리의 고민을 더 깊게 들여다보자!

01

### 문화활동 기획부터 운영까지, 혼자가 좋을까? 여럿이 좋을까?

#### 함께하는 활동의 한계

대부분의 문화활동이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  
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사업비 안에서 함께하는 분들의 인건비를 책정하기가  
어렵다 보니 결국 대부분의 실무가  
공동체나 단체의 대표에게 쏠리게 되죠.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 보면 지치게 되고,  
결국 문화활동 자체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요.

####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문화기획자·활동가 분들을 만나보면 잘하는 분야가 달라요.  
단순히 장르만 말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기획, 문서 작성, 프  
로그램 진행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그래요.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는 만큼 때와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시스템도 함께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우리의 고민을 더 깊게 들여다보자!

02

### '완주'에서 문화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 문화예술 활동이 직업일까요?

직업으로 하기엔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죠. 직업이 아닌 삶의 측면으로 바라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문화예술활동이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요.** 자립을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도 필요하겠지만, 지역의 역량, 연결망도 필요해요. 지역의 연결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자리가 많아져야 할 것 같아요.

#### 나만의 방향성

좋아하는 일을 펼쳐나가다 보면 점차 자신이 그 활동을 즐기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지치고, 방향성을 잃게 되죠. 그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방향성'이 명확해야 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의 가치나 의미에 대해 자신의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 우리의 '전환점' 공유하기



**김민경** 완주에서, 예술가가 되다

**김지영** 배움·돌봄·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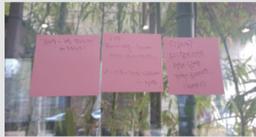
**이정지** 독서놀이에서 책 놀이로, 그리고 예술독서로

**이영숙** 나를 위한 문화예술활동을 생각해 보는 시기

**이지영** 시도하고 배워가고 찾아가는 중

**정다영** 힘이 되는 목소리

**전 별**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다



**한송지** 경력단절 대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을 생각한다는 것

**백남경** 바쁘다, 바쁜데, 또 한다. 왜? 내가 좋으니까.

**홍미진** 림보책방 X 느낌보식탁

**김성수** 완주 X 재즈

**김태진** 지역을 기록하는 일

**김다은** 삶의 모든 순간들이 전환점

## 2023년에는 이렇게 만나볼까요?



1

문화기획활동 아이디어 발굴



2

협력 프로젝트 기획·시범운영



3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정책·시스템 제안하기



4

지역의 연결망! 네트워크 지속하기

### 2022 완주문화원탁회의

지역문화기획자·활동가 원탁회의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함께 나눈 고민과 생각의 기록은 완주문화재단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완주의 문화예술을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기획자·활동가들의 이야기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제별 원탁회의 들여다보기

문화예술기관시설

## 문화예술기관시설

### 논의목적

- 문화예술기관시설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정보교류 및 완주문화예술 정책, 관련 의제 도출
- 완주문화예술기관시설 협력사업 기획·실행을 통한 완주문화예술 통합 정보서비스 제공, 지역문화예술활동 아카이빙 진행

### 개요

- 운영기간 : 2022.3. ~ 12
- 운영횟수 : 총 20회  
    개별간담회 16회, 원탁회의 3회, 업무협약식 1회
- 참여기관·시설·단체 : 완주군 15개 문화예술기관·시설·단체  
    구이생활문화센터, 동상생활문화센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복합문화지구 누에, 삼례책마을, 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완주문화원, 완주문화의집·삼례생활문화센터  
    완주미디어센터, 완주문화재단, 완주풍류학교,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이서문화의집,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완주지회

### 주요 내용

- 완주문화예술 통합 모바일 매거진 <안녕! 완주문화> 기획·발행
- 기관·시설·단체 활동 및 현안, 완주군 문화예술정책 정보 공유

## 1. 문화예술기관·시설·단체 개별간담회

- 기간 : 2022.3.10.~3.31
- 장소 : 완주군 문화예술기관·시설·단체 사무실
- 참여기관·시설·단체(총 16개)  
    : 구이생활문화센터, 동상생활문화센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복합문화지구 누에, 삼례책마을, 삼례문화예술촌  
    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완주문화원, 완주문화의집·삼례생활문화센터, 완주미디어센터  
    완주문화재단, 완주풍류학교,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이서문화의집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완주지회
- 주요 내용  
    · 2022년 논의 주제 협의 : 완주군 문화예술기관·시설·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완주군 문화예술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 시도

## 2. 문화예술기관·시설 원탁회의 운영

### 1) 문화예술기관·시설·단체 원탁회의 운영

#### ① 1차 원탁회의

- 일시 : 2022.4.13(수) 10:00~12:00
- 장소 :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 참석자 : 총 11명(9개 문화예술 기관·시설·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 논의내용

- 완주군 문화예술정보 통합 홍보 채널 기획 및 운영 방안 논의
- 통합 홍보 채널 운영 : 완주문화재단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모바일 매거진 발행,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홈페이지(완주문화캐린터)를 통한 공유
- 콘텐츠 구성 : 기관·시설·단체 소개, 사업 안내, 프로그램 홍보, 사업 과정 및 결과 공유 등
- 통합 모바일 매거진 기획 : 참여기관·시설·단체 사업 일정 공유, 5~7월 매거진 콘텐츠 기획

② 2차 원탁회의

- 일시 : 2022.6.22(수) 10:00~12:00
- 장소 :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 참석자 : 총 17명(12개 문화예술 기관·시설·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 논의내용 : 문화예술정책 공유, 통합 모바일 매거진 기획
  - 참여기관·시설·단체 활동 공유
  - 문화예술정책 공유 : 새 정부 문화정책,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통합 모바일 매거진 기획 : 참여기관·시설·단체 사업 일정 공유, 7~9월 매거진 콘텐츠 기획

③ 3차 원탁회의

- 일시 : 2022.12.6(화) 10:00~12:00
- 장소 : 복합문화지구 누에 실마리홀
- 참석자 : 총 14명(13개 문화예술 기관·시설·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 논의내용 : 2022년 원탁회의의 활동 평가 및 2023년 활동 제안
  - 2022년 협력사업 완주문화예술 통합 모바일 매거진 발행 결과 공유
  - 2023년 활동 제안 : 통합 모바일 매거진 지속발행, 지역별 문화예술 현안 공유·대안 모색

2) 문화동행 업무협약 체결

- 일시 : 2022. 7. 27(수) 14:00~16:00
- 장소 :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 참여기관·시설·단체(총 14개)
  - 구이생활문화센터, 동상생활문화센터, 복합문화지구 누에 삼레책마을,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완주문화원, 완주문화재단 완주문화의집·삼레생활문화센터, 완주미디어센터 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완주풍류학교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이서문화의집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완주지회
- 참석자 : 총 36명
  - 14개 기관·시설·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완주군 관계부서 등
- 내용
  - 완주군 문화예술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
  - 완주군 문화예술 통합 정보서비스,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 등

3) 완주문화예술 통합 모바일 매거진 <안녕! 완주문화> 발행

- 기간 : 2022.5.~12
- 횟수 : 16회(월 2회 발행)
- 제작 콘텐츠 : 63건

- 내용
  - 문화예술기관·시설·단체 소개
  - 사업 소개 및 참여자 모집 안내
  - 사업 과정 및 결과 공유
- 배포 인원 : 회당 평균 3,721명

## 완주문화예술소식과 만나다 <안녕!완주문화>

### 3. 정책과제 발굴 및 사업 제안

- 모바일 매거진 <안녕! 완주문화> 발행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 통합 정보서비스의 필요성 및 지속 가능성 확인
-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예술기관·시설·단체의 활동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안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분석 필요
- 통합 정보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콘텐츠의 다각화 외에도 전문 인력 및 예산책정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 완주군 문화예술 통합 플랫폼(홈페이지 등 별도 플랫폼) 구축 검토 필요



새로운 취미를 갖고 싶은데... 근처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까?

이번 주말엔 뭐하지? 가까운 곳에서 하는 전시, 공연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셨다면?  
**안녕! 완주문화**를 만나보세요!

## '안녕! 완주문화'를 만든 질문들

**#질문 1.**  
어디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나요?

'안녕! 완주문화'를 만드는 '문화예술기관시설 원탁회의'는 '2022완주문화원탁회의' 주제 모임 중 하나로 완주군 문화예술기관·시설·단체가 함께하는 자리인데요.

문화예술현장에서의 고민을 나누던 중, 한 가지 공통된 주민들의 질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문화예술활동 정보를 찾을 수 있나요?"



## '안녕! 완주문화'를 만든 질문들

**#질문 2.**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예술기관시설 원탁회의에서는 어떻게 하면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소식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시설·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활동 정보를 주민과 공유하는 통합 모바일 매거진 <안녕! 완주문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 안녕! 완주문화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 오후 5시 발행!

완주군 15개 문화예술기관·시설·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부터 공연, 전시, 축제까지! 다양한 문화예술소식을 카카오톡으로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 완주문화 구독방법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QR코드 스캔 채널 추가**

**친구**

**1** **완주문화재단**  
삶과 소통하는 문화예술로 일상이 즐거운 완주

**2** **채널추가**

**완주문화재단** 검색

2022 완주문화원탁회의

<안녕! 완주문화>와 함께하는  
완주군 문화예술기관·시설·단체를  
소개합니다!

구이생활문화센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동상생활문화센터, 복합문화지구 누에,  
 완주문화의집·삼례생활문화센터  
 삼례책마을, 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완주문화원,  
 완주미디어센터, 완주풍류학교, 완주문화재단,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이서문화의집, 한국예총 완주지회

'완주문화원탁회의'와 <안녕! 완주문화>가 궁금하시다면?  
 완주문화재단 정책기획팀(063-262-3955)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주제별 원탁회의 들여다보기

## 문화예술 성평등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 문화예술 성평등

##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 논의목적

- 문화예술계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확장 및 활성화
- 전북지역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 실행

### 개요

- 운영기간 : 2022.6. ~ 12.
- 운영횟수 : 총 21회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업무협약 1회  
네트워크 회의 총 8회, 성평등 문화예술 비평학교 11회, 포럼 1회
- 장 소 : 전라북도 일원
- 참여기관·시설·단체 : 총 10개 기관·대학·민간단체  
(재)완주문화재단, (재)고창문화관광재단, (재)부안군문화재단  
(재)익산문화관광재단,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재)전주문화재단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전북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지식공동체 지지배배

### 주요 내용

- 전라북도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운영
- 성평등 문화예술 비평학교 '문화예술 다리미' 심화과정 운영
- 포럼 '포스트-미투 시대, 전라북도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만들기' 진행

## 1.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운영

### ○ 업무협약 체결

- 협약명 : 전라북도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 협약일 : 2022.7.29.(금)
- 협약기관·단체(총 10개 : 문화재단 6, 공공기관 1, 대학 1, 민간단체 2)  
: (재)고창문화관광재단, (재)부안군문화재단, (재)완주문화재단  
(재)익산문화관광재단,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재)전주문화재단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전북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지식공동체 지지배배

### · 협약내용

- 전라북도 문화예술계 성평등 인식 확산
- 안전하고 평등한 창작환경 조성 및 성주류화를 위한 성평등 정책 마련
- 포럼, 성평등예술비평학교 등 공동사업 실행

### ○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회의 진행

- 기간 : 2022.6~12
- 횟수 : 8회
- 참여인원 : 총 82명(10개 기관·단체 관계자)
- 주요내용  
-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협력사업 기획 및 운영 협의  
- 전북권 문화재단 지원사업 성평등 관점 반영 여부 자료 분석

## 2.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 심화과정

- 기간 : 2022. 9.7.(수) ~ 11.16.(수) / 매주 수요일 14:00~17:00
- 횟수 : 11회
- 수강인원 : 8명
- 수료인원 : 5명
- 운영방법 : 대면·비대면 병행
- 주요내용
  - [특강] 성평등 관점에서 문화예술 읽기(5회)
  - [강의 및 멘토링] 전북지역 문화예술작품을 성평등 관점에서 다시 보고 비평문 작성하기(강의 1회, 멘토링 4회, 총 5회)
  - [공유회] 비평문 발표 및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활동 평가, 2023년 활동 제안
  - [비평집 발간] 『스팀steam』
  - 참여자 비평문 6편, 기록 원고 3편, 성평등 네트워크 관계자 원고 1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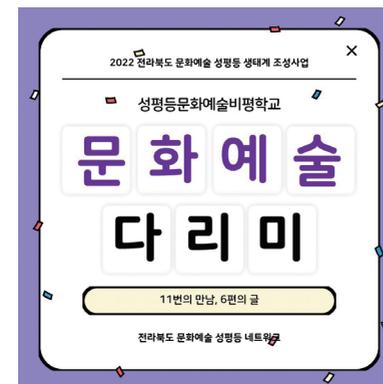
## 3. 포럼 '포스트-미투 시대, 전라북도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만들기'

- 일시 : 2022.11.25.(금) 15:00~17:30
- 장소 :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 참여인원 : 36명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관계자 및 전북도민
- 세부내용
  - 미학적인 것의 분화 : 문화예술계 성폭력 고발과 예술다움의 정의  
[발표] 허윤(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토론] 박언주(전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전북 연극계 미투 이후 5년 : 우리에게 남은 것들  
[발표] 진명숙(전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토론] 구혜경(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 미투 이후 지역문화재단의 변화와 과제 :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발표] 신인혜(완주문화재단)  
[토론] 송원(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 전북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협력사업 '문화예술다리미'를 돌아보다  
[발표] 박진아(팟캐스트 살롱드전북)  
[토론] 김미진(전북도민일보)

#### 4. 정책과제 발굴 및 사업 제안

- 2년 동안 진행된 성평등 문화예술 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 사업 운영을 통해 성평등 관점에서의 지역문화예술 작품 비평 활동 가능성 확인. ‘문화예술다리미’ 수료생을 중심으로 한 비평그룹 구성 및 활동 지원 필요
- 성평등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라북도 성평등 문화예술 네트워크의 협력 활동 지속 방안 마련,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 예산 확보 필요
- 문화예술현장에서 성평등 이슈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문화재단 성평등 관련 규정 마련 필요

## 문화예술다리미 :11번의 만남, 6편의 글



## 젠더의 렌즈로 지역문화예술을 함께 바라보기

김은혜 지식공동체 지지배배

일상에서 '지역'이라는 단어는 '중앙'의 반대 개념으로 '지방'이나 '시골', '촌'이라는 단어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그것은 대체로 부정적이거나 부족한 것의 의미로 사용된다.

...

기본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작품에 애정을 가져야 한다. 다만, 이때의 '애정'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닌 '왜 이 작품이 중요한지'에 대해 언급하고 '어떠한 작품의 어떤 점이 문제인지 짚어내는 것'이기도 하다.

## 미투 이전과 이후로 영화를 보는 것이 달라졌다

강지이 영화감독

한국의 로맨스 영화를 대표하는 작품을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다시 보기 했을 때 마주한 불편한 진실

...

평론에서 극찬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라도 권위자나 다수의 말을 믿지 말고 올곧게 자신의 시각과 생각으로 영화 보기

## 왜 위대한 여성 예술가는 없는가?

이유리 <캔버스를 찢고 나온 여자들> 저자

여성 미술가는 권위의 상징인 역사화를 그릴 수 없었고 누드 데생 수업에도 들어갈 수 없었다. 그림을 그리는 여성 뿐 만이 아니라 그림 속 여성들조차도 이러한 사회의 제약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림을 보는 남성의 시선에 맞춰 그려진 여성의 몸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는 명화로 불리고 있다.

...

이처럼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 계급, 여성의 삶을 제한하는 제약들을 이겨내고 많은 여성 미술가들은 자신만의 그림을 그렸다.

## 파스텔톤의 표지에는 얼굴을 알 수 없는 가녀린 여성이 있다

오혜진 문학평론가

어디에선가 들어보셨직한 혹은 내가 겪어 본 듯한 일들을 풀어내 보편성을 담보하고, 독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면서도 추상적으로 그려내 누가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따라 지극히 다의적으로 해석된다.

...

"삶의 존재 방식이 여러 가지이듯, 선택이 합리적 일 때도 비합리적 일 때도 있다. 인간의 그 모순적 면모를 이해하는 것이 페미니즘이 할 일이 아닌가."

## 성평등 관점에서 연극을 비평하는 연습

김민조 연극평론가

기존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극장의례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는 아니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기존의 지배적인 젠더 각본을 비틀어 보기를 제안한다.

...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같은 작품도  
독특한 연출에 대한 호평과  
대상화, 단편적 표현에 대한 문제제기가 동시에 존재한다.

## 성평등 시각으로 예술 비평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송원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최근 감상한 작품을 소개하기'  
'흥미롭게 감상한 콘텐츠 이야기하기'  
'작품을 감상하면서 가졌던 불편함 이야기하기'  
이 세 질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

자신이 생각하는 비평,  
성평등 시각에서 비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유하는 시간

## 내년의 다리미가 기대됩니다

문화예술다리미 참여자

제1회 고창신재효문학상 수상작 소설, 『금파』  
영화, 《태어나길 잘했어》  
전시 『2022 도래할 풍경\_전주: "매일매일 내일展  
Today Today and Tomorrow"』, 비평문을 통해  
판단이나 평가 대신, 이해와 인정으로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각기 다른 시선을 공유하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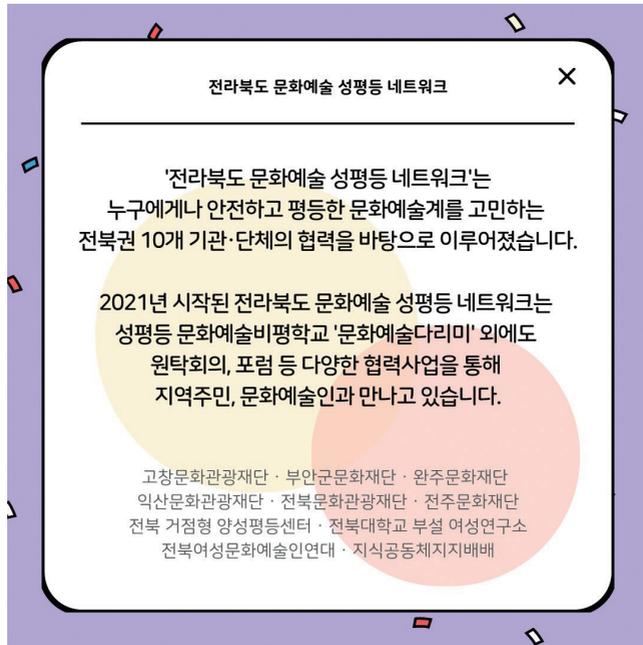
...

작년, 올해의 경험을 발판삼아  
내년 다리미는 더욱 성장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우리는 모두 하고 있었다.

## 11번의 만남, 6편의 글

2022 문화예술다리미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

다가오는 12월에 발행될  
비평집 <스팀 steam>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주제별 원탁회의 들여다보기

공유·교류 원탁회의  
: 연결 그리고 함께

## 공유·교류 원탁회의 : 연결 그리고 함께

- 일 시 : 2022. 12. 26.(월) 14:00~16:00
- 장 소 :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 참 여 자 : 총 13명 (주제별 원탁회의 참여자, 완주문화재단 관계자)
- 세부내용
  - 원탁회의 주제별 발표 및 제안
    - 문화예술기관·시설 원탁회의 : 문화예술기관시설 네트워크의 필요성  
[발표] 김귀정(완주미디어센터), [제안] 정예은(완주풍류학교)
    - 문화기획자·활동가 원탁회의  
: 지역문화기획자·활동가들의 고민과 대안 모색  
[발표] 전별(전스비주얼랩), [제안] 김지영(엄마의 방학)
    - 장애인문화예술 원탁회의  
: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모색\_지역 사례 중심으로  
[발표] 박순천(완주군장애인복지관), [제안] 이승철(예수재활원)
    - 성평등 원탁회의(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 지역 내 성평등 문화의 필요성  
[발표] 송원(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제안] 최유정(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 2022 완주문화원탁회의 평가
  - 2022 완주문화원탁회의 평가 및 주제별 원탁회의 연계·협력 방안 논의
  - 2023 원탁회의 활동 제안

## 완주문화예술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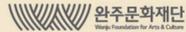
## 2022 완주문화원탁회의, 이렇게 만났습니다!

### 문화예술기관·시설

- ✓ 완주군 문화예술기관·시설·단체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 ✓ 문화예술정책 동향 및 주요 이슈를 공유해요
- ✓ 문화예술기관·시설·단체 현황과 사업을 공유하고 연계·협력 방안을 찾아요

### 문화기획자·활동가

- ✓ 문화예술현장에서 활동하는 기획자·활동가들이 모였어요
- ✓ 문화기획자·활동가들의 경험과 고민을 나눠요
-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아이디어와 방법을 함께 논의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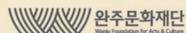
## 2022 완주문화원탁회의, 이렇게 만났습니다!

### 장애인문화예술

- ✓ 관내 장애인복지기관·시설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 ✓ 완주형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요
- ✓ 장애인문화예술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사자 중심의 문화예술 지원방안을 찾아요

### 성평등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 ✓ 문화예술현장에서 활동하는 기획자·활동가들이 모였어요
- ✓ 문화기획자·활동가들의 경험과 고민을 나눠요
-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아이디어와 방법을 함께 논의해요



## 문화예술기관·시설 원탁회의 : 협력의 시작

### 문화예술 기관·시설의 고민

- 다양한 문화예술기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면 좋을까요?
- 기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활동의 가치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 ✓ 완주군 문화예술 통합 모바일 매거진 '안녕! 완주문화'

매월 1, 3주 월요일 오후 5시,  
완주문화재단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발송되는  
'안녕! 완주문화'는 완주군 15개 문화예술기관·시설·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전시, 공연, 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담고 있어요!

완주군  
문화예술  
통합 플랫폼  
구축

## 문화기획자·활동가 원탁회의 : 느슨한 연대

### 문화예술 활동의 자생력 확보?

-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활동의 한계
- '어떻게 하면 지원 없이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을까?'
- 함께 방법을 모색하고, 실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자!

• 문화예술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살펴보기  
문화예술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떠한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는지, 이를 통해 지역이 어떻게 나아지고 있는지 평가

• 의미와 가치 분석·평가 병행하기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변화 지점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단순히 숫자로 정의되지 않는 결과를 포함한 입체적 평가 추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입체적  
평가

## 장애인문화예술 원탁회의 : 당사자 중심

문화예술로  
만들어가는  
보통의 삶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의미  
지역사회와 다른 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을 찾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
- 장애인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원하는 걸 직접 선택하고 생각을 표현하고 싶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이해 확대
-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문화예술 활동이 시작되고 지속될 수 있는 창작공간과 장애문화예술인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구축
- 장애유형 및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향유를 넘어 작품을 창작하고, 전문 문화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꿈을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방법  
당사자  
중심

## 성평등 원탁회의 : 점에서 선으로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문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표현이 누군가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성평등 관점의 문화예술비평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문을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과정. 성평등을 시작으로 다양한 차별의 관점에서 지역문화예술을 읽는 작업

- 점에서 선으로, 그리고 면이 되어가는 문화예술기관시설-학계-민간, 지역사회-주민-예술인의 연결과 연대
- 혐오와 차별 대신, 이해와 존중으로 문화예술 속 혐오와 차별 표현을 성평등 시각으로 보고,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는  
성평등  
문화예술

2022 완주문화원탁회의 기록

장애인문화예술 워크숍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이  
'나와 너' 그리고 '우리'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한다

##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이 '나와 너' 그리고 '우리'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한다

이 승 희

우리 사회는 어느 쪽에서는 더 나빠졌으나 어느 쪽에서는 분명히 나아졌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 그러하고 불평등의 문제에 있어 그러하다.

요즘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뜨겁다. <나의 해방일지>에서부터 <우리들의 블루스>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까지. 세 드라마를 마주하며 우리는 등장인물들이 제각각 처한 어려움에 주목하게 되고, 같지 않은 '다름'에 관심을 갖게 된다. <나의 해방일지>에 등장하는 '염미정'은 또래 여성들이 관심 갖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들의 블루스>에 등장하는 영옥의 언니 '영희'는 다운증후군이라는 장애가 있다.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다. 이 세 인물은 모두 조금 혹은 많이 다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안다. 우리 사회에 다른 사람들이 이들뿐이 아니라는 것을. '일반적'이라는 부적절한 단어로 일컬어지는 사람들 사이에도 엄청나게 다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서로의 다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존중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만 봐도 그렇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름의 인식'에서 나아가 '다름의 공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함께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나'만 잘 살고 혹은 '우리'만 잘 살고가 아닌, '어떻게 하면 이렇게도 다른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것이다. 더불어 서로의 다름 혹은 차이에 대한 인식의 목적과 필요성은 '나'를 포함한 서로 다른 '우리'가 진정으로 잘 살기 위함에 있으며 이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다.



## 2021년 내디뎠던 첫걸음에 이은 지속적인 발걸음

2020년 12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0년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가 진행됨에 따라 완주에서도 장애인문화예술 정책과 네트워크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21년 ‘완주문화원탁회의’ 주제 중 하나로 ‘장애인문화예술 원탁회의’가 구성되었고,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공유 및 장애예술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문화예술 정책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는 완주군 장애인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문화예술 원탁회의의 첫걸음이었다.

2021년에 시작된 작은 걸음은 2022년에도 이어졌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완주문화재단은 늘푸른 그룹홈, 아리아리 공동체(한사랑), 예수재활원, 은혜동산, 완주군수어통역센터,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완주군평생교육아카데미,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완주지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완주군지부 등 완주군 내 장애인 관련 기관·시설·단체를 만나 곳곳의 이야기를 수렴하는 개별간담회를 진행했다. 장애 유형과 정도, 거주 유형, 연령 등 각기 다른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다양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이야기를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장애인이라서 혹은 장애예술인이라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 또는 비장애 예술인이 누리는 문화예술을 장애인, 장애예술인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해 보이지만 전혀 특별하지 않은 매우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했다. 예를 들면 생활복지뿐 아니라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보장되는 문화복지 또한 필요하며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맞춰 기획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그러했다.

그 밖에도 단체 중심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 초점을 맞춘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이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향유자로서 뿐만이 아닌 자신의 작품을 창작하는 문화 생산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같은 맥락이었다.

이는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개별간담회를 통해 모인 다양한 이야기들은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과 사업 논의 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는 기초 자료가 되었다.

한차례 소나기가 내려 습한 기운이 가득했던 지난 7월 12일 화요일,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에서 2022 완주문화원탁회의 《장애인문화예술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장애인문화예술 원탁회의’ 참여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활동가,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 완주군 장애인복지팀까지 3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1부는 참석자들의 자기소개와 강남장애인복지관 송보민

팀장의 사례 발표로 이루어졌고, 2부는 완주문화재단 송은정 사무국장의 지역 내 장애인 문화예술 현황에 대한 발표를 바탕으로 완주군 장애인문화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행사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3시간을 훌쩍 넘긴 5시 20분이 되어서야 마무리되었다. 워크숍 분위기는 습함과 더위가 축축함과 따뜻함으로 느껴질 만큼 화기애애했는데 특강 강사로 온 강남장애인복지관 송보민 팀장이 ‘민·관이 이렇게 서로에게 웃으며 자리를 권하고 마주하는 분위기가 부럽다’ 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을 정도였다.

### 강남장애인복지관 대신 ‘액티브 아트’를 전면에 내걸다

올해로 개관 13년 차를 맞은 강남장애인복지관은 국내 유일 ‘장애인 문화예술 특화복지관’ 이다. 이곳의 개관 멤버로 현재까지 함께하고 있는 송보민 문화예술지원팀장을 만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남장애인복지관이 문화예술 특화복지관이 된 계기부터 시작해 복지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특성과 개관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장애인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한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만큼이나 다사다난했고 흥미진진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외부 전시나 공연을 진행할 때 ‘강남장애인복지관’ 이라는 기관명 대신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는 의미를 담은 ‘액티브 아트’ 라는 서브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하나의 기관에서 두 가지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의아했으나 관객들로 하여금 작품을 감상함에 있어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설명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렵고 더디더라도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은 출발선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우리가 작품을 감상함에 있어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듯이 장애인의 작품을 감상할 때도 작가의 장애 여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강남장애인복지관의 문화예술 지원은 ‘문화 누림’이라는 회원제 동아리 운영을 통해 시작되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춰 장애인의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후 개관 3년 차가 되었을 때, 문화예술 향유에서 나아가 ‘장애인 아티스트 발굴·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단순히 재능있는 장애인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문화예술로 의사표현과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는 대목이 인상적이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한 ‘아티스트 육성사업’의 경우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과 재능이 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갈 곳이 없는 장애인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한 끝에 구상해낸 사업이었다. 강남장애인복지관의 장애예술인 육성은 ‘신진 장애예술인 발굴-계획 수립-교육-기획사업 진행-활동지원’으로 이루어진 ‘아티스트 5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굴·육성된 장애예술인은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국제교류 사업에 참여하거나 대회에 나가 상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장애예술인 양성 및 활동 지원 사례는 완주군 장애예술의 미래를 그리는 우리의 마음에 기분 좋은 바람을 가져다주었다.

##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생태계를 만들어 가자”

우리보다 한참 먼저 앞서 시작한 곳의 이야기를 들으니 자연스럽게 ‘우리 완주는 현재 얼마만큼 와있을까, 완주의 상황은 어떠할까’ 궁금해졌다. 2부에서 진행된 완주문화재단 송은정 사무국장의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추진 방향 모색’ 발표는 우리의 이러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주었다. 장애문화예술의 개념부터 시작해 ‘향유기반 구축’과 ‘예술활동 기반 구축’ 그리고 ‘사회적 인식개선’이라는 장애문화예술의 세 가지 측면과 현재 완주의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주었기 때문이다.

송은정 사무국장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47번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56번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전용 도서관 조성과 배리어 프리 존(Barrier-Free-Zone)<sup>1)</sup> 인증제 강화, 57번 장애 예술 활성화 지원 등을 소개하며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적 태도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문화예술현장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국내 장애예술인 기본 현황과 장애 유형별·활동 장르별 분포를 살펴보고, 완주군 장애인 기본 현황 및「완주군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 실태조사(완주군장애인복지관, 2020)」중 문화,

1) 배리어 프리(Barrier-Free) :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 (출처: 네이버)

교육 분야의 일대일 설문 결과 등 장애문화예술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도 차근차근 정리해주었다.

다음은 발표 내용 중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2022년 4월 기준 완주군의 등록 장애인 수는 8,045명이고, 이는 전체 인구 대비 8.9%로 우리나라 전체 비율인 5.1%보다 더 높으며, 그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56%에 이른다. 완주군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 실태조사 중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외출을 하는 경우는 3.3%에 불과했고, 외출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이동의 어려움’을 꼽았다. 현재 하고 있는 문화 활동에 대한 질문에서는 70.5%가 ‘없다’고 답하였고, 하고 싶은 문화활동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서도 ‘없다’가 82.0%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 영화, 공연관람 등의 문화여가 편리성에 대해서는 91.5%가 ‘편리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할 도서관 이용 편리성 역시 ‘편리하지 않다’에 대한 응답이 72.5%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내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매우 부족하며 접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더불어 문화활동의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문화활동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완주군 장애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염두 해야 하는

부분이었다.

장애인문화예술 워크숍의 마지막은 질의응답 및 자유발언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한마음으로 자리를 지킨 참석자들은 장애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다. 각자 처한 위치나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달랐지만,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기반 구축, 장애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 장애와 문화예술을 이해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장애인이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는 창작환경 조성 및 지원’ 등으로 주요 키워드를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지난해부터 많은 이야기를 나눴은 만큼 완주문화재단 차원에서의 구체적 계획이나 지원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재단에서는 지역 내에서 장애문화예술 논의가 시작되고 ‘완주형 장애문화예술 활동’을 설계하는 단계인 만큼 이러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부터 함께해나갔으면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이에 워크숍 참석자들은 많이 늦은 측면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행정 - 기관 - 민간이 함께 차근차근 하나씩 바꾸는 작은 실천을 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2  
0  
2  
2  
완주군장애인문화예술  
활동  
기초  
자료  
조사  
의  
기  
록

완주군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기초 자료 조사

장애인문화예술 활성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 장애인문화예술 활성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이 승 희

지난 12월 21일 수요일,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장애인문화예술 원탁회의’가 진행되었다. 원탁회의 1부에서는 올해 함께 진행한 <2022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2부에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22년 ‘장애인문화예술 원탁회의’를 돌아보고 2023년에는 어떤 활동을 함께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올해 장애인문화예술 원탁회의에서는 <2022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기초 자료조사>를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문화예술 활동 욕구 및 장애인 문화예술 현황, 장애인복지기관·시설 및 문화예술 기관·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 현장 중심의 과제를 도출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복지기관·시설 이용자 중 문화예술 활동에 꾸준히 참여했거나 지속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장애인 당사자 18명과 완주군 내 장애인복지기관·시설 8곳, 문화예술기관·시설 16곳이었다.

조사 방법은 장애인 당사자의 경우 대면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장애인복지기관·시설과 문화예술기관·시설의 경우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내용은 대상에 따라 크게 ‘장애인 당사자의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욕구 조사’, ‘장애인복지기관·시설의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문화예술기관·시설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로 나뉘었다.

가장 먼저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활동 현황 및 욕구 조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현황과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전문예술인 활동 욕구, 문화예술 경험과 문화예술 활동 욕구의 연관성,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기반 마련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장애인복지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단체(조직) 운영, 취미·여가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예술행사(공연, 전시, 축제 등)에 대한 현황과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점에 대한 질문으로 채워졌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에서는 기관·시설 현황과 장애인 이용 현황,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무장애 시설·서비스 운영,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점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세 가지 카테고리 모두 중요한 항목이나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장애인 당사자의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욕구 조사였다.

## 18명의 이야기를 듣다

다음은 ‘2022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가장 먼저 장애인 당사자 문화예술활동 현황 및 욕구 조사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은 이러하다.

가장 먼저 문화예술교육 참여 현황에 대한 자료다. 학교 재학시절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참여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조사 결과 미술, 서양음악, 공예, 무용, 음식 순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중 미술이 16.5%로 다른 장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문화예술교육 참여 계기로는 ‘장애인복지시설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39%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 등 공교육기관을 통해’ 참여한 경우가 24.4%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기관·시설, 문화예술기관·시설을 통한 참여는 9.7%로 낮은 응답률을 보여 장애인의 공공기관·시설, 문화예술기관·시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한 문화예술교육 분야 및 프로그램 조사에서는 ‘국악’이 35.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풍물, 사물놀이 등의 교육에 장기간 참여한 경우가 많았는데 최대 16년을 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문화예술교육 운영기관·시설로는 ‘장애인복지기관·시설’이 67.6%로 과반수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다. 피아노, 가죽공예, 디자인, 문학 등 참여자가 소수이거나 기관·시설에서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의 경우 개별 지원 서비스, 바우처 등을 활용해 학원 등 사설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문교육의 경우 ‘장애인복지기관·시설’, ‘공교육’, ‘사설교육 기관’ 을 통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문교육은 ‘대학교’ 를 통한 참여가 유일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 입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시설은 다양한 편이나 전문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문화예술 관련 전문교육을 받고자 할 때의 어려움으로는 ‘교육자의 장애인·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교육비 부담’, ‘교육 정보의 부족’, ‘무장애 시설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부족’, ‘장애 유형을 고려한 교육과정의 부족’, ‘건강상의 이유’ 등을 꼽았다. 대부분이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였으나 교육자가 장애인 또는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른 데 갔어요.” 라는 인터뷰 참여자의 말은 우리 마음을 시큰하게 하는 대목이었다.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동아리, 개인 작업 등)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묻는 질문에서는 ‘그렇다’ 는 답변이 80%를 넘었다. 그 이유로는 ‘문화예술 활동, 창작활동을 계속하고 싶어서’ 가 30%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즐겁고 재미있어서’, ‘발표할 때 느끼는 뿌듯함, 즐거움’ 이 각 25%로 그 뒤를 이었다. 장애인 당사자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활동에서 느끼는 재미, 문화예술 활동에서 느끼는 성취감 · 뿌듯함,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의지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예술 전문교육을 받는 데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

1) 교육자의 장애인·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른 데 갔어요.”

2) 교육비 부담

“대학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비싸서 못했어요.”

3) 교육정보의 부족

“어디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4) 무장애 시설 및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부족

“전문교육이 있으면 하고 싶은데,  
제가 OO가 불편해서 못해요.”

5) 장애유형을 고려한 교육과정의 부족

“공부 못하면 꿈을 못 이루게 되잖아요.”

6) 건강상의 이유

“전문교육을 받기가 힘들어요.”

반대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교육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와 ‘취업을 해야 해서’라는 답변이 많았다. 사회생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직업 훈련 등이 더 중요하며, 문화예술의 경우 취미·여가 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또한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았다.

특히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위한 전문교육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88.9%였으며, 전체 결과 중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4.5%로 전문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전문예술인으로서의 활동 욕구에 대한 항목이다. 문화예술 활동 욕구 조사 결과와 비교 시 예술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응답자는 83.3%에서 61.1%로 감소하였는데 ‘직업으로 문화예술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주요 원인으로 보였다. 18명 중 11명이 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싶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에서 3위였던 ‘발표할 때 느끼는 뿌듯함과 즐거움 때문에’가 46.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다음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경제활동의 욕구’와 ‘예술인이라는 꿈에 대한 도전’을 이야기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전문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장애인 당사자도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문화예술 발표에서의 긍정적 경험이 많고, 문화예술 활동·창작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할수록 예술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도 높아지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반면 7명은 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

는 55.6%가 ‘스스로 전문예술인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를 꼽았다. ‘잘 못할 것 같아서’, ‘잘 못해서’로 표현되는 장애인 당사자의 말은 예술인의 활동을 비장애인 기준의 작품 창작과 발표로 인식하고 있으며, 스스로 그러한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예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잘 한다’의 기준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장애인이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의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불편함 역시 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싶지 않은 주요 이유로 꼽혔는데 이는 지역 내 무장애 시설 설치와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 서비스 확대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화예술향유와 문화예술 경험, 그리고 문화예술 욕구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지난 3년간 관객으로서 문학, 미술, 음악, 공연 등 문화예술분야 행사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횟수에서는 ‘영화’가 63.1%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주에 있는 영화관에서 배리어프리영화 상영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장애인의 경우 관람 비용 할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향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장애인의 접근성으로 무장애 시설 설치 여부나 관람 지원 제도 등이 잘 이루어져 있을수록 참여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예술 행사 관람 시 어려운 점으로는 ‘비용 부담, 불편한 교통, 장애유형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부족,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을 이야기했다.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행사로는 ‘대중음악(콘서트 등), 영화, 미술 전시회, 연극, 뮤지컬’ 등을 꼽았다.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분야 행사는 무엇인가요?

⋮

“영화랑 가수 콘서트 가보고 싶어요.  
다른 건 안 해봐서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대중음악 콘서트 가보고 싶어요.  
소리는 못 들어도, 음향의 울림을 느낄 수 있거든요.”

/

“연극이나 뮤지컬 등도  
수어통역이 된다고 하면 가보고 싶어요.”

/

“춤추고 노래 부르는 공연 보고 싶어요.  
다른 것도 다 가보고 싶어요.”

/

“아무데나 가고 싶어요. 여러 가지 구경하면서  
뮤지컬도 보고 싶고, 다른 것도 공연하는 것도  
보고 싶고, 여러 가지 공연 전시회에 가보고 싶어요.”

/

“영화요. 장애인이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정보시스템의 부족’이 중요도·긴급도 1위로 파악되었다. 지역 내에 다양한 기관·시설이 있지만, 어떤 기관·시설이 있는지 잘 모르고, 기관·시설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요도·긴급도 2위는 ‘연습 공간 및 창작 공간 부족’이었다. 대부분의 문화예술활동이 장애인복지기관·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관·시설의 교육실 및 기타 공간을 이용하다 보니 프로그램 시간 외에 연습하거나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연습 공간 또는 창작공간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관점에서 장애예술인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표, 전시, 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이 확보되고, 향유층이 넓어지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 지역 상황을 감안했을 때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보조인 등 작품 창작에 필요한 인력과 서비스 제공이 더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예술 활동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아리, 개인 또는 단체·협회를 통한 문화예술 기획·창작·발표’ 등과 관련된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문화예술활동 분야는 공예, 방송, 국악, 서양음악, 미술, 사진 등으로 한정적이었다. 대부분의 문화예술 활동이 장애인복지기관·시설의 교육 후속 활동 지원 또는 동아리 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기관·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분야 외의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당사자의 문화예술 활동 경험 및 활동 욕구 비교와 관련해서는 교육에 참여했거나, 프로그램 관람 경험이 있는 분야의 경우 이후에도 참여하고 싶어 하는 응답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장애인 당사자의 문화예술 경험 및 향유 욕구 비교에서도 참여하고 싶은 장르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거나 관람·교육 프로그램 참여 비율이 높은 분야가 선택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뮤지컬’의 경우 프로그램 관람 비율, 교육 참여 비율이 매우 낮고, 장르 자체를 모르는 참여자가 많았으나, 기존에 경험한 음악, 무용(댄스), 연극이 하나로 모여 배우들이 노래와 춤, 연기를 하는 장르라는 설명이 이루어진 뒤 많은 선택을 받았다. 위의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자신이 경험한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인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예술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재교육’이 중요도와 긴급도 부문에서 모두 1위로 조사되었다. 혼자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외에도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가르쳐 주는 사람(교수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배움의 욕구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활동보조인 지원’은 중요도 2위, 긴급도 3위로 분석되었는데 신체 움직임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활동에 대한 이해, 표현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해 주는 사람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창작지원(기금) 및 수혜자 확대’는 중요도 3위, 긴급도 2위로 분석되었는데, 장애인 당사자에게 창작지원(기금)은 대부분 작품 활동을 위한 기기(카메라, 기타 장비), 재료비 등을 의미했으며, 작품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바람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지원’은 긴급도 3위, 중요도 4위로 파악되었는데, 일상적으로 활용 가능한 창작공간 혹은 연습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장애인복지기관·시설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중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단체(조직) 운영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8곳 중 2곳만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취미·여가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8곳 중 6곳이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를 질문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 ‘자기표현 기회 확대’,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만남 및 소통 기회 마련’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이를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문화예술 전문 인력’과 ‘장애유형에 따른 단계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관내 16곳의 문화예술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기관·시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에서는 각 기관·시설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가’를 물었다. 16곳 중 11곳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이 어려운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및 편의서비스 미흡’을 꼽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이동지원, 보조인력, 편의시설 설치’ 등을 꼽았다.

참고로 ‘장애인 당사자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욕구 조사’ 결과는 총 18명의 응답자가 답변한 것으로 응답자의 성비는 여성이 13명으로 5명인 남성에 비해 8명이 더 많았다. 연령대는 20대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40대 5명, 50대 3명, 60대 2명, 30대 1명이었다. 지역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수 위치한 소양면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삼례읍이 3명, 구이면·봉동읍·상관면·용진면이 각 2명, 비봉면 및 기타가 각 1명이었다.

완주군 내 장애인 수에 비해 18명이라는 응답 인원은 소수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이유로 <2022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 조사> 결과가 완주군 내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대표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시간을 들여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원하는 바는 무엇인지, 필요하거나 개선되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 또한 지역 내 장애인문화예술의 지표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보는 이들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지닌 장애인 당사자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 장애문화예술인의 내일을 위한 고민

2부에서는 <2022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 조사> 결과를 마주하면서 느끼거나 생각했던 바를 각자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내 장애인문화예술 활성화 방안과 2023년에 함께했으면 하는 활동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장 먼저 은혜의 동산 임평화 원장은 조사 결과를 보면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경험이 많이 부족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는 평과 함께 다른 시설의 경우 개별서비스 지원 즉, 본인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은혜의 동산’은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많다 보니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이 많아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애인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예수재활원 이승철 원장은 지역 안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이해가 확장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며 이게 우선되지 않으면 어떤 활동을 준비하더라도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장애인문화예술과 관련된 기관·시설 종사자, 기획자, 강사 등 관계자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함을 주장하며 그렇게 된다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및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또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일회성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정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예수재활원 박수진 씨는 장애예술 교육과정의 부재로 인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교육에 참여하게 되고, 비장애인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인해 장애인이 상처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재능 있는 장애인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또한,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관련한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장애인문화예술 정보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완주군장애인복지관 박순천 팀장은 ‘경험치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한다’는 결과가 묵직하게 와 닿았다고 전하며 특히 ‘뮤지컬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관람조차도 해본 적이 없어서 뮤지컬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했다는 이야기’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지역 내 장애인의 경우 중증,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데 정책에 따라 당사자 중심의 지원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당사자의 인식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한 이번 인터뷰 조사를 통해 참여한 장애인이 누군가를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만족해하는 모습을 봤다며, 인터뷰 하나만으로도 장애인 당사자의 생각이 바뀌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완주군지부 유영희 대표는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나

생각이 충분히 표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기다림이 필요함을 짚으며 당사자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역할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장애인 당사자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족과 같은 조력자, 협력자의 이야기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력자들이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했을 때 당사자의 참여도 역시 높아진다는 것 이었다. 더불어 장애인의 작품을 활용한 굿즈 상품 제작 등 경제적 활동도 함께 모색함으로써 장애예술인들이 직업적으로도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늘푸른 그룹홈 김화순 대표는 자녀가 장애인이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밝히며 요즘 활동보조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다고 했다. 자신의 경우 어디를 가도 주변에 눈치가 보여 ‘안 된다’고 제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활동보조인 선생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한다며 예전에 딸의 얼굴이 물 먹은 스펀지처럼 무거웠다면, 요즘은 가벼워 보인다는 소감을 전했다. 오늘 조사 결과를 보니 여러 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느껴져 희망적이라는 기대감도 밝혔다.

완주군수어통역센터 강지현 사무국장은 조사 결과를 듣는 내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떠올랐으며 사회서비스든 문화서비스든 양적이 아니라 질적이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는 완주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농아인 문화 분야에서 1등인데, 문화재단이 ‘당사자 중심’의 지원을 고민하고 있어 정량 성과가 아니라 ‘20명을 지원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를 성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갑다고 전했다.

완주문화재단 송은정 사무국장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장애인이 아닌 ‘우리’ 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방향과 당사자의 활동 욕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기 위한 교육이 장애인복지기관·시설, 문화예술기관·시설 관계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밀도 있는 워크숍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제안과 함께 정기적으로 지역 내 장애인 문화예술 정보를 취합·정리하여 배포하고 아카이빙하는 과정을 시도해 봐도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예수재활원 이하나 씨는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작은 연주회처럼 지금 활동하는 장애인들이 발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장애인문화예술인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모임의 필요성도 이야기했다.

이 밖에도 2023년에 함께했으면 하는 활동으로 장애인이 만든 물품 등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공간, 장애인문화예술 캠페인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매우 구체적인 의견도 있는가 하면 다소 두루뭉술한 의견도 있었는데 이러한 의견은 크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워크숍, 장애예술인 양성 및 활동 체계 마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추려졌다.

‘장애인문화예술 원탁회의’도 다른 주제와 마찬가지로 2021년에 이어 2년째 진행되고 있는 주제이며 2023년에도 함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에는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의미였다면, 2022년에는 ‘장애인문화예술 워크숍’과 <2022

년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기초 자료조사> 등을 통해 완주군 장애인문화예술에 관한 고민을 심화하는 시간이었다.

지금까지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이지 않을까 싶다. 원탁회의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모여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2023년에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하다.

2022 완주문화원탁회의 기록

문화기획자·활동가 네트워크

—  
자신의 세계를  
우리의 세계로 확장하고  
우리의 세계를 나의 세계로  
살아가는 이들

## 자신의 세계를 우리의 세계로 확장하고 우리의 세계를 나의 세계로 살아가는 이들

이 승 희

우리에게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우리는 그 세계를 공유하고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 문화기획자 혹은 활동가로 불리는 사람들은 나의 세계를 우리의 세계로 만들거나 우리의 세계를 자신의 세계로 살아가는 이들이다. 2022년 ‘문화기획자·활동가 네트워크’는 전체 네트워크 모임, 신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릴레이 인터뷰’, 소모임, 결과 공유회로 이루어졌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수료생  
‘문화기획자·활동가 네트워크’ 로 거듭나다

‘완주문화원탁회의’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진행 중인 ‘문화기획자·활동가 네트워크’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완주문화재단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전주문화재단과 함께 지역 밀착형 문화 리더를 발굴하고자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했다.

완주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지역문화콘텐츠 기획자 양성과정’에는 완주에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활동가와 더불어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2020년까지 진행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한 이들은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네트워크가 진행되길 원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완주문화재단에서는 완주문화원탁회의의 주제 중 하나로 ‘문화기획자·활동가’를 진행하게 되었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수료생을 중심으로 시작된 ‘문화기획자·활동가 네트워크’는 신규 참여자 모집을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력으로 범위를 확장하며 느슨하지만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다.

### 서로를 알아가는 우리만의 방식, 릴레이 인터뷰

지난 5월 말 이틀에 걸쳐 ‘문화기획자·활동가 네트워크’ 전체 모임이 진행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작년에도 ‘문화기획자·활동가 네트워크’가 진행되긴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다수의 만남이 제한되어 소수의 기획단을 꾸려 활동을 기획했고,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만남을 이어갔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깊이 알 수밖에 없는 이 방식은 생각 이상으로 유익하고 흥미로웠다. 일대일 만남이지만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그 결과물이 블로그를 통해 공유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문화기획자·활동가 네트워크’와 구성원을 알릴 수 있어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 신규 참여자를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자칭 대왕 오지라퍼 백남경, 소리점빵 김민경, 주민들과 문화로 소통하는 이영숙, 글로 사람들을 만나는 이정지’ 이렇게 총 4명의 신규 참여자들의 이야기가 인터뷰로 기록·공유되었다.

### 지역문화예술, 다섯 가지 이야기로 들여다보기

2022년 첫 네트워크 모임은 5월 30일 오후 2시와 5월 31일 오전 10시에 진행됐다. 모두가 모이는 전체 네트워크는 처음이라 한날한시에 모이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많은 인원이 시간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어 두 번에 걸쳐 만날 수밖에 없었다. 짧고 굵은 자기소개 시간을 갖고 2021년에 진행된 문화기획자·활동가 네트워크 활동과 지역 내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눴다.

지역 내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는 다섯 갈래로 추려졌다. 가장 먼저 ‘문화기획자·활동가와 문화예술지원사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완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공동체가 발달해 있어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공동체 혹은 단체가 아니면 지원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공동체나 단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은 문화예술 장르나 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동체나 단체의 활동만이 아닌 개인의 활동도 지원되는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졌다.

또 한 가지는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생활문화 현장에서도 기획자 보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문화예술 활동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이상 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에 기댈 수 밖에 없다.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계획부터 운영, 결과 보고까지 다양한 행정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기획자의 인건비를 책정할 수 없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 다른 분야의 사업이 그러하듯 생활문화 분야에서도 기획자 혹은 활동가에게 그에 맞는 보수가 지급될 때 이들이 활동을 지속하며 성장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 밖에도 코로나19 확산과 선거와 같은 ‘외부 상황으로 인해 일어난 문화예술 현장의 변화’, ‘문화기획자·활동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문화예술활동의 홍보 방안’, ‘문화기획자·활동가 네트워크에 바라는 점’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나 자신 앞에 마주한 문제, 고민을 나누는 것은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지만 그러한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열두 가지 중에서 선택된 두 가지 주제와  
주제별로 이루어진 소모임

올해 ‘문화기획자·활동가 네트워크’ 활동의 중심은 소그룹으로 각기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소모임 네트워크’였다. 작년 한 해 동안은 ‘텔레이 인터뷰’를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올해는 구성원들이 지닌 다양한 고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한 것이다.

총 14명의 구성원이 다섯 그룹으로 나뉘어 그룹별로 주제를 택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각 그룹별로 ‘기획단에서 제안한 열두 가지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기로 했는데 다섯 그룹 중 두 그룹과 세 그룹이 같은 주제를 택했다. 같은 주제를 고른 만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다섯 그룹은 다시 두 그룹으로 재편성되었다. 두 그룹의 선택을 받은 주제는 각각 ‘문화활동은 혼자 하는 것이 좋은가, 여럿이 하는 것이 좋은가’와 ‘완주에서 문화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문화활동 기획부터 운영까지, 혼자가 좋을까 or 여럿이 좋을까

문화활동은 당연히 함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 ‘문화예술은 혼자 하는 것이 좋은지, 함께 하는 것이 좋은지’를 묻는 질문이 이야기 주제로 나오고 선택까지 받게 되었는지 의아할 수 있다. 전자의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문화기획자들은 보통 점으로 존재하다

< 기획단에서 제안한 열두 가지 이야기 주제 >

/

1. 좋은 문화예술기획·활동이란 무엇일까?
2. 어떻게 해야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잘 쌓을 수 있을까?
3. 문화예술활동 홍보 어떻게 해야 할까?
4. 지원사업 없이 문화예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5. 문화예술은 혼자 하는 것이 좋은가,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좋은가?
6. 완주문화도시 지정 후 많은 지원 이면에 문화소외계층, 문화소외지역은 없는 걸까?
7. 주민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 계기와 운영 방법은 무엇인가?  
  
커뮤니티를 운영할 때 어려운 점이나 고민되는 지점은 무엇인가?
8. 스스로를 문화기획자·활동가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있는가?
9. 다른 방향으로 활동을 바꾸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10. 문화예술기획 및 활동이 직업이 될 수 있을까?
11. 예술가에게 기획력이 요구되는 요즘, 예술가도 기획력을 갖추어야 하는 걸까?
12. 완주에서 예술가, 문화예술기획자·활동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활동이 있을 때마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을 이루듯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때로 여러 점이 공존하지만 그러한 공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탓에 이 문제는 많은 문화기획자·활동가에게 화두가 되곤 한다. 김다운 외 다섯 명의 참여자들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하는 활동의 한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문화기획자·활동가에 대한 오해’, ‘좋아서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장 먼저 ‘함께하는 활동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부분의 문화활동이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에 기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실무자 인건비 책정을 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실무자들의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실수가 공동체나 단체의 대표에게 쏠리게 된다. 즉 여러 명이 함께해도 일은 한 사람에게 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마음 맞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동력으로 다시 활동을 준비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구조에서 선뜻 함께하자고 할 수도 없는 현실에 대한 고민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다음은 ‘문화기획자·활동가 또는 문화활동에 대한 오해’에 관한 이야기다. ‘문화기획자·활동가 또는 문화활동에 대한 오해’는 크게 ‘문화로 돈을 벌면 안 된다’와 ‘화려한 전문가로 인식되는 문화기획자·활동가’ 두 가지였다.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졌지만, 지역일수록 ‘문화는 공짜’라는 인식이 많이 퍼져있고 완주의 경우 다양한 문화활동

이 무료로 제공되다 보니 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듯하다. 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 예산에서 인건비를 책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사업 참여자는 무료 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하니 중간에 놓인 문화기획자·활동가는 혼란스럽다. 현재 완주의 문화예술 현장은 한쪽에서는 ‘자립’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선 ‘봉사’로 바라보는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의 가짓수가 많아질수록 일부에선 ‘돈을 많이 번다’고 인식해 시기·질투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상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치면 펼칠수록 정작 그 당사자는 자기 자신을 위한 문화활동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진짜 문화소외계층은 문화기획자·활동가다’라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흘려들 수 없는 이유다.

마지막으로는 ‘좋아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대한 이야기다. 문화기획자·활동가들이 이런저런 어려움과 힘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금의 일을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건비와 같은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돈’보다 이 일을 통해 마주하는 가치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두 시간 동안의 논의를 통해 ‘지원 대상 및 방식의 다양화, 활동에 대한 적정 보수 책정, 전문 예술인 혹은 활동가와 생활문화예술인의 구분, 마을 안에서의 문화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기간의 다양화’ 등을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꼽았다.

## ‘완주’에서 문화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완주에서 문화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주제를 택한 김민경 외 네 명의 참여자들은 이에 대해 각자가 가진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문화예술활동은 직업인가?’부터 ‘지역 내 연결망의 중요성’, ‘나만의 방향성 찾기’,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행정 업무와 활동의 구분’ 까지 크게 다섯 꼭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완주에서 문화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주제로 택한 이들은 우선 ‘문화예술활동이 직업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문화예술활동이 직업이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밖에 없기에 직업으로 바라볼 수 없으나 삶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자신만의 속도에 맞춰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 문화예술활동이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이어서 지역에서 보조금 없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과 마을의 역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개인이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는 과정 만큼 지역 안으로 스며드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이야기는 지역 내 연결망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되면서 앞으로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만남의 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안으로 이어졌다.

이후 이야기는 ‘나만의 방향성 찾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지역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영역, 나만의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앞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무엇보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다 보면 정작 자신이 그러한 활동에서 소외되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지치고 방향성을 잃게 됨을 이야기했다. 그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방향성’이 명확해야 하고,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의 가치나 의미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고민은 스스로의 언어를 찾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의견은 문화예술 분야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느껴졌다.

네 번째는 ‘지역이기에 가능한 것’에 대한 이야기다. 지역에 오기 전에는 과도한 경쟁으로 전문가로 인정받거나 경제적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지역에 오니 그러한 경쟁보다 활동의 의미에 초점이 맞춰지고 뭐든 해보라는 분위기가 있어 스스로 만족하고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었다.

마지막은 ‘행정 업무와 활동의 구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사업마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매칭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다. 그렇게 된다면 활동가들은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행정 업무를 진행하는 담당자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 2022년을 돌아보고 2023년을 가늠하며 우리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하기

한 해의 끝을 한 달 앞둔 11월 29일과 30일, '문화기획자·활동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이들이 다시 모였다. '나의 문화예술 활동의 전환점'을 주제로 각자 현장에서 느끼고 생각했던 바를 나뉘보기로 했다. 이틀에 걸쳐 참여한 열세 명의 열세 가지 이야기를 간략하게 추렸다. 우리는 이를 통해 '문화기획자·활동가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경험한 '전환'은 무엇이었는지 들여다보고 이들의 동력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김민경 '완주에서, 예술가가 되다'

음악을 짓는 작곡가. 완주에서 생활문화를 접하면서 실력을 키우고 기능을 익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즐거움은 마음을 알게 됨으로써 진정한 예술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 김지영 '배움·돌봄·환대'

아이의 엄마 그리고 남편의 아내로 살아가며 가족을 돌보며 살아가는 동안 '나'를 잃어버렸던 나는 나와 같은 다른 이들을 만남으로써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만남 가운데에 배움, 돌봄, 환대를 됨으로써 나도 남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 이영숙 '나를 위한 문화예술활동을 생각해 보는 시기'

완주 이주 10년 차, 아직도 원주민에겐 이주민이지만 문화관광해설사로 지역을 알리고, 문화이장으로 반상회를 여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만들어왔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문화활동으로 '비봉농악단'과 그림 공부에 매진에 볼 생각이다.

### 이자영 '시도하고 배워가고 찾아가는 중'

'책공방 책 학교'를 통해 만난 친구들과 함께했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내 문화기획의 첫 시작이었다. 그 이후 완주문화재단에서 진행한 문화다양성발굴단 '소수다' 활동이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가 되었고 최근에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친환경 공동체 '빈땅'을 꾸리게 됐다.

### 이정지 '독서놀이에서 책놀이로, 그리고 예술독서로'

지역 연구자이자 작가라는 정체성을 갖고 문화해설사로 일하며, 8년째 '독서모임 휴휴'를 진행하고 있다. '고산 할머니들과 함께 했던 그림책 만들기' 수업을 통해 책 읽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예술독서'를 펼치게 됐다.

### 정다영 '다영씨, 고마워요.'

기관 종사자인 동시에 문화기획자로 살아가던 삶에서 좀 더 자유로운 문화기획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요즘이다. 과거에 함께 했던 사람들로부터 고맙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그때는 무척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좋은 기억만 남았다. 그러니 너무 힘들 땐 잠시 내려놓고 거리를 두자!

### 한송지 '경력단절 대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을 생각한다는 것'

여러 가지 고민과 이유에서 도자공예를 택했고 청년예술가 친구들과 비영리 단체 '위시아트랩'를 만들어 다양한 문화기획을 시도했지만 여러 가지로 충족되지 않았다. 그때부터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도 밥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모토를 가지게 됐고 최근에는 경력단절 여성들과 함께하고 있다.

### 백남경 '바쁘다, 바쁜데, 또 한다. 왜? 내가 좋으니까.'

한지 의상 제작부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전시, 학교 교육, 감 농사, 고3 수험생 아들의 뒷바라지까지 1인 다역을 맡아 바쁘게 지냈다. 이렇게 바쁜 삶을 어떻게 살아냈을까 싶지만 내가 즐거워서 한 일이기 때문에 가능했지 싶다. 앞으로도 내가 좋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계속하고자 한다.

### 홍미진 '림보책방X느림보식탁'

'고산청년공간X림보책방'에서 올해부터는 '림보책방X느림보식탁'으로 보조금을 받지 않는 자립의 공간을 시작했다. 이곳에서 나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따르기보다 나의 방식을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아직은 우당탕탕이지만 내년부터는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는 실험을 하며 '가치'에 집중해 작은 눈이라도 뭉쳐보려 한다.

### 김성수 '완주X재즈'

완주로 거점을 옮기고 '우리 마음대로,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2022년에는 미디어 레지던시 사업을 이어가며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전주재즈페스티벌》도 기획·운영했으나 행사가 끝난 후 번아웃이 와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럼에도 좋아하는 일인 만큼 앞으로도 협력하여 재즈 문화를 확산하고 싶다.

### 전별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다'

전스비주얼랩 창업 6년 차, 처음엔 영상으로 시작했는데 2020년 완주군 청년들이 모인 굿즈 제작팀 '이슬별' 활동이 계기가 되어 무모함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다 보니 지금은 디자인, 상품 제작 등 다양한 일을 하는 종합기획사 같은 느낌이다. 처음 3년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나를 알아봐 주고 함께해주는 사람들이 생겨서 건강과 내 주변을 잘 챙기며 살아가려 한다.

### 김태진 '지역을 기록하는 일'

완주문화재단에서 진행했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며 프로젝트 결과물로 『나기』 1호를 만들고 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을 이어갔다. 최근에는 군산 청년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기록이 과거에 치우쳐져 있는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 김다은 '문화기획·활동에서의 전환점'

수원에서 무용치료사로 문화예술강사를 하다 완주에 내려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면서 문화기획·활동에 입문하게 됐다. '문화이장'과 문화다양성 발굴단 '소수다'를 통해 활동을 이어왔고, 출산을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내겐 모두 전환이자 변화였고 그 결과 나의 색깔을 찾아 지금은 엄마들과 함께하는 자기 치유 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전환'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나눈 뒤 마지막으로 2022 문화기획자·활동가 원탁회의 평가와 2023년 활동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멈춰있던 문화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모두가 분주했고 그러한 탓에 사업에 온전히 집중하는 힘은 부족했지만, 소규모 만남을 통해 서로를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고 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2023년에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워크숍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제안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문화활동이나 문화기획자를 위한 문화활동에 대한 바람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2023년에는 문화기획자·활동가들이 이 다양한 제안들을 어떻게 풀어어나갈지 기대가 된다.

### 원탁회의 돌아보기

완주군 문화예술 통합 모바일 매거진

<안녕! 완주문화> 이야기

## 완주군 문화예술 통합 모바일 매거진 <안녕! 완주문화> 이야기

이 승 희

한자리에 모여 하나의 플랫폼으로  
열여섯 곳의 소식을 나누고 전하다

‘문화예술기관·시설 원탁회의’는 완주군 16개 문화예술기관·시설·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다. 2021년에는 완주문화재단을 비롯하여 구이생활문화센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동상생활문화센터, 복합문화지구 누에, 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완주문화의집·삼례생활문화센터,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완주미디어센터, 완주풍류학교, 이서문화의집 총 12곳이 함께 했는데 올해는 삼례책마을, 완주문화원,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한국예총 완주지회 4곳이 추가되어 총 16곳의 이야기를 그려모을 수 있었다. 작년에 이어 2022년인 올해도 완주문화원탁회의 중 한 꼭지로 진행되어 연속성을 띠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작년보다 더 많은 기관 및 시설이 참여하며 확장성까지 챙겼다.

완주군 내에는 다양한 문화예술기관·시설·단체가 존재한다. 하지만 같은 지역, 같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도 마주할 일이 많지 않고 각 기관·시설의 업무가 많다 보니 서로 간의 소식을 모르거나, 깊이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게 서로 연대의 자리를 만들지 못한 채 평행선처럼 각자의 길을 가던 기관시설들이 2021년 원탁회의를 통해 교류를 시작했다. 기관시설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던 부분은 교육 및 행사 등 프로그램 홍보의 어려움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통합 정보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는 2022년 완주군 문화예술 통합 모바일 매거진 <안녕! 완주문화>로 이어졌는데 이는 ‘문화예술기관·시설 원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첫 시작이었던 2021년에는 각 기관·시설 간의 교류에 집중했다면, 해를 거듭한 올해에는 통합 플랫폼 구축과 이를 통한 각 기관의 소식 발신에 집중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다.



## 완주군 문화예술 통합 모바일 매거진

### <안녕! 완주문화> 발행을 시작하다

올해 ‘문화예술기관·시설 원탁회의’는 총 세 번의 만남을 갖고 <안녕! 완주문화> 발행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했다.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첫 모임에 앞서 기관별로 사전 간담회를 진행했다. 각 기관이 처한 상황이나 이에 대한 고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기관 자체 플랫폼을 새롭게 만들기엔 부담이 있고 여력이 안 된다,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지속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통합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기관별 소식을 전하는 것이 타 기관과의 경쟁 구도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다, 기존의 업무가 많아 부담이 되고 중복으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여러가지 부담과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군 내 문화예술기관·시설 소식을 군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과 기관·시설별 홍보 채널이 다양해진다는 점에서 함께 통합 홍보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다.

지난 4월 13일 수요일, 첫 원탁회의가 열렸다. 2022년 첫 만남이었던 만큼 먼저 각 기관별 근황 및 소식을 공유하고 통합 홍보 채널 운영 방향 및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합 홍보 채널 구축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그다음인 콘텐츠의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발신하는 방법이나 형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기존에 완주문화재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e-문화밥상’을 참고하여 콘텐츠 내용은 기관 소개,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공연 및 전시 행사 안내, 사업 진행 및 결과

등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글이나 사진, 홍보자료와 영상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콘텐츠를 발행하는 방식은 새로운 플랫폼 구축에 대한 부담과 이로 인한 업무 과중을 고려하여, 완주문화재단에서 이미 운영 중인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되 발행 시기와 매거진 이름을 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식지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 안건으로 떠올랐다. 회의 중에 ‘문화소쿠리’와 ‘안녕! 완주문화’ 두 가지 안이 나왔으나 중요한 사항인 만큼 바로 결정하기보다 시일을 두고 고민해보기로 했다. 그 결과 통합 매거진 이름은 <안녕! 완주문화>로 결정되었다. 1차 회의에서 공론화된 사항 중 기억해야 할 지점은 각 기관의 관계자들이 완주군 문화예술 정보 플랫폼 구축에 대한 당위성을 공감하였다는 점과 이러한 활동의 결과를 올해만이 아닌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것이다. 완주군 내 문화예술기관시설 안내, 교육·체험 프로그램 안내, 공연 및 전시 소식 안내, 사업 결과 공유 등으로 구성된 완주군 문화예술 통합 모바일 매거진 <안녕! 완주문화>는 이렇게 16개 기관·시설·단체 관계자들의 공감과 동의 끝에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완주군 문화예술기관·시설 소식을 한눈에 만나 볼 수 있는 모바일 소식지 <안녕! 완주문화>가 지난 5월부터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월요일, 완주문화재단 온라인 채널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5월 첫째 주와 셋째 주, 6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이렇게 네 번의 발행을 거친 후인 6월 22일 수요일 ‘문화예술기관·시설 원탁회의’ 두 번째

모임이 이루어졌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안녕! 완주문화> 발행과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면, 2차 회의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주를 이루었다. 완주문화재단에서는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문화예술분야 과제와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내용을 공유하였다. 이 밖에 참여자별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 예정인 사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안녕! 완주문화> 발행 현황과 이후 제작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안녕! 완주문화>가 시작된지 얼마 안 된 만큼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하기엔 이른 감이 있었지만 발행 이전에 비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전화 가 늘었다는 반응이 있었다.

## 새로운 시작

### <안녕! 완주문화>를 돌아보다

2022년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12월 6일 화요일, 올해의 마지막 ‘문화예술기관·시설 원탁회의’가 진행됐다. 지난 5월 첫째 주부터 발신을 시작해 총 14개의 <안녕! 완주문화>를 발행한 시점에서 그간의 활동과 성과를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늠하여 보는 시간이었다.

우선 내부적인 평가는 <안녕! 완주문화>가 문화예술기관·시설의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여 문화예술기관·시설의 활동과 사업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무엇보다 각 기관·시설·단체별로 하는 일을 서로에게 알리고 이 내용의 하나의 소식지로 만들어 발신했다는 점 자체가 획기적이었고 고무적이라는

판단이였다. 더불어 타 기관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참여 확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동안 진행을 하는 중에 아쉬웠던 점이나 개선해야 할 지점으로는 사업의 유동성에 따른 콘텐츠 제작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었다.

이러한 유동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시설·단체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존의 사업계획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주기적으로 변동 사항을 공유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갑작스런 변동이나 특이 사항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기존의 콘텐츠 대부분이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이나 전시 및 행사 안내 등 홍보 위주인 만큼 콘텐츠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현재 시점에서 너무 많은 것을 담기보다 기관별로 진행하는 내용을 시기에 맞춰 잘 전달하고 기존의 내용에 내실을 더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인 계획을 통해 매거진을 확장하자는 생각이였다.

<안녕! 완주문화>의 지속 발행 여부에 관해서는 이 활동을 처음 시작했던 때를 기억하며 통합 플랫폼의 운영 효과를 판단하기엔 아직 이른 만큼 휴식기 없이 지속적으로 발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1-2월의 경우 진행되는 사업이 많지 않은 만큼 각 기관·시설·단체 소개 콘텐츠를 중심으로 제작하기로 했다.

‘문화예술기관·시설 원탁회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었다. 2021년에는 여러 문화예술 기관 및 시설이 한자리에 모였고, 2022년에는 완주군 문화예술 통합 모바일 매거진 <안녕! 완주문화>를 만들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이 발걸음은 다가오는 2023년에도 꾸준히 지속될 예정이라고 하니 반가울 따름이다. 각 기관·시설·단체의 소식이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지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완주군민이 문화를 누리는 것은 물론 각 기관의 활성화와 유기적 연결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를 통해 따로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문화연대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적지 않은 예산과 많은 사람의 노고가 투입되는 만큼 <안녕! 완주문화>가 더 많은 사람이 문화로 행복해지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문화로 행복한 완주군이 되길 기대한다.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

평평한 문화예술을 위한 작지만 확실한 실천

##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 평평한 문화예술을 위한 작지만 확실한 실천

이 승 희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  
작년 기초과정에 이어 올해 심화과정을 시작하다

지난 9월 7일(수)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이하, 문화예술다리미)》 심화과정이 시작됐다. ‘문화예술다리미’라는 이름에는 우리가 다리미로 옷감을 펴서 평평하고 매끈하게 하듯 문화예술에서도 불평등의 주름을 펴서 평평하게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2021년 기초과정에 이어 심화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문화예술다리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작년의 운영 과정을 답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본 사업을 진행하는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이하, 성평등 네트워크)’의 양적 확장이다. 2021년 완주문화재단을 비롯하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고창문화

관광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전주문화재단, 전북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지식공동체 지지배배까지 총 8개 기관·단체가 모여 만들어진 ‘성평등 네트워크’는 2022년 부안군문화재단과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가 합류하며 총 10개 기관·단체로 늘었다. 전북권 6개 문화재단과 관련 분야 공공기관, 학계, 민간이 함께 함으로써 네트워크의 활동 범위 역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평등 네트워크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문화예술다리미》의 내용도 깊어졌다. 지난해 진행했던 기초과정에서는 참여자들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보고 비평문을 작성했다면, 이번 심화과정에서는 모둠별로 지역문화예술작품을 성평등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는 강의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들여다보기’를 제안했다는 것도 유의미하다. 이러한 지점들은 이번 《문화예술다리미》 심화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투영된 결과다.

그날의 기록을 전하기에 앞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바가 있다. 그것은 ‘성평등 문화예술비평’이 특별히 대단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문화예술을 바라보던 다양한 관점에 ‘성평등’이라는 관점을 하나 더해보자는 제안이라는 점이다. 비평문 쓰기에서 ‘비평’이라는 단어는 ‘비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해석되곤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무언가에 대한 ‘비평’은 그 무언가를 살리는 일이 지 절대 죽이는 일이 아니다. 비평의 내용이 어떠하든 그 무언가에 대한 비평은 그것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평등’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작품’을 보고 ‘비평’을 하고 ‘비평문’을 공유하는 일은 그 자체로 반가운 일인 동시에 유의미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성평등 관점으로 문화예술 비평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 총 11차시 대장정의 문을 여는 첫 시간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함께 하고자 하는가?’

《문화예술다리미》 심화과정의 첫 시작은 1부와 2부로 이루어졌다. 1부 오리엔테이션은 사업 소개와 참여자의 자기소개로 채워졌고, 2부 여는 강의는 ‘성평등 관점에서 지역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작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지식공동체 지지배배’의 전 대표이자 『칸과 흙의 세계로 바라본 전복』의 저자인 김은혜 강사가 맡아주었다. 심화과정인 만큼 기초과정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기회에 이 분야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자 하는 새로운 참여자도 있어 반가움을 자아냈다.

완주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사업 소개는 ‘지역에서 문화예술 비평문을 본 적 있나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지역을 소재로 하거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이 많지 않고 이에 대한 비평문화는 더욱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문화예술다리미》 사업이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이야기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지역문화예술을 성평등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공유로 이어졌다.

무슨 일을 하느냐 만큼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는지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통해 이 사업이 여타의 다른 사업과 달리 일방적으로 참여자를 이끌고 가는 방식이 아닌 성평등 네트워크와 참여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성평등’의 ‘성’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의 문제가 아닌 제3의 성까지 모두 포함하는 ‘성’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과정이 ‘성’을 비롯해 어떤 이유로든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존재와 다름이 인정되는 지역과 문화예술계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사업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는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 무게를 싣고자 하는지에 대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어서 ‘문화예술다리미 심화과정 커리큘럼 안내’를 통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함께하게 될지도 알아보았다. 《문화예술다리미》 심화과정은 ‘오리엔테이션&여는 강의’로 1차시를 시작해 총 11차시의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2~5차시에는 시각, 영상, 문학, 공연 이렇게 네 가지 매체별 분석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6차시 때는 모듈별로 같은 작품을 보고 성평등 관점에서 그 작품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한다. 7차시는 ‘웬위크숍 : 질문찾기’ 시간으로 비평문을 작성하기에 앞서 ‘성평등 관점에서 문화예술작품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이 필요할까?’ 또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나야 할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8~10차시에는 모듈별로 ‘지식공동체 지지배배’ 멘토와 함께 각자 1편의 비평문을 작성하고, 마지막 11차시에는 앞서 작성한 비평문을 발표하고 활동 소감을 나눌 예정이다.

오리엔테이션은 전북 성평등 네트워크와 참여자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니만큼 기본적인 자기소개와 더불어 각자 어떤 고민과 이유를 갖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참여하신 분들의 사연은 이러하다.



“분주한 일상으로 인해 오랜 고민 끝에 신청했는데 ‘완주’를 목표로 내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지역에 내려온 이후 젠더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려워 답답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좀 더 확장될 수 있으면 좋겠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동안 일상에서 느꼈던 불편한 지점을 나눠보고 싶다.”

“공부를 싫어하면서 좋아하고 좋아하면서 싫어하지만, 공부의 기쁨을 경험해 알고 있기에 이번 과정에서도 그러한 공부의 기쁨을 경험하고 싶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기대한다.”

“현재 사회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라 이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론적인 공부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학문적인 딱딱한 관점이 아닌 말랑말랑한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고 싶다.”

“지역에서 청년들과 월경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에코 페미니즘 활동을 해보고 싶다.”

“지난해 기초과정에 참여하며 그동안 지나치던 부분을 되돌아보게 되는 경험을 했는데 이를 지속가능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함을 깨달아 그 관계를 이어가 보고자 함께하게 됐다.”

## 젠더의 렌즈로 지역문화예술 함께 바라보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김은혜 강사의 2부 여는 강의 '젠더의 렌즈로 지역문화예술 함께 바라보기'는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지식공동체 지지배배'의 소개로 시작됐다. 2018년에 만들어진 '지식공동체 지지배배'는 웹툰, 소설, 시, 영화, 희곡 분야의 여성 연구자 다섯 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모임에서는 구성원들이 각자가 공부하는 내용을 공유하며 서로 자극을 받고, 때로는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정보를 공유하며 그 내용이 모임 내부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바깥으로 확장되는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은혜 강사는 '전북민주시민교육센터 바스락' 활동가이자 만화 연구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2022년 2월에는 『칸과 흠의 세계로 바라본 전북(곰곰출판)』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여는 강의는 이 책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는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의 책을 나누어 주어 이번 시간에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책을 통해 전하고자 했다.

그의 이야기는 크게 성평등과 지역문화예술 관련하여 함께 생각해 볼 질문들과 지역 기반 작품에서 의문과 불편을 느꼈던 부분, 그리고 이전에 진행했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될 지역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나뉘었다. 이 이야기는 각각 우리가 어떠한 성평등 관점을 가질 것인가, 무엇을 지역문화예술로 바라볼 것인가와 함께 그러한 지역문화예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할 지역문화예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됐다.

그는 먼저 《문화예술다리미》에서 계속해서 등장할 '지역'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일상에서 '지역'이라는 단어는 '중앙'의 반대 개념으로 '지방'이나 '시골', '촌'이라는 단어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그것은 대체로 부정적이거나 부족한 것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문화예술다리미》에서는 '지역'을 그 자체의 의미로, 가치중립적으로 사용하고자 함을 밝히는 한편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젠더의 렌즈로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지구라는 공간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 다른 삶을 열등하게 만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만들기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sup>1)</sup>

김은혜 강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공유하며 우리 사회가 '젠더'라는 용어를 여성과 남성으로만 구분해서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또한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것이다.”<sup>2)</sup> 라는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 또한 마찬가지로 단일한 것이 아님을 밝혔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까지 고정된 채 지나쳐왔던 '지역' 혹은 '전통'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

그리고 웹툰 <집이 없어>와 <며느라기>를 소개하며 “집이라는 공간이 젠더의 눈으로 장소를 바라보았을 때 가장 문제적인 혹은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장소<sup>3)</sup>” 라는 홍혜원의 논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집'이 '동네-마을-지역'으로 확장되기에 우리가 젠더의 눈으로 '집'을

1) 『젠더, 공간, 권력』, 안수경, 한울아카데미, 2020

2) 『젠더트러블』, 주디스 버틀러, 문학동네, 2008

3) 『어문연구88집』, 홍혜원, 「'집'의 장소와 젠더-연상성의 '일대의 유업'을 중심으로」, 2016, p208

바라본다면, 집의 확장된 개념인 ‘지역’도 다시 보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다음 이야기는 『칸과 흙의 세계로 바라본 전북』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의 책은 총 7편의 만화 작품에 대한 비평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만화가들의 인터뷰로 구성되었는데 이번 강연에서는 그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를 모티브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불친’의 <해망굴 도깨비>부터 비전향 장기수 허영철의 삶을 담은 박건웅의 <나는 공산주의자다>, 전주를 배경으로 막걸리를 다룬 <대작>, 전주의 마지막 기생 허산옥의 삶을 그린 조원행의 <권번기생 비밀의 기억>, 전북 기반 작품은 아니지만 전북에서도 이러한 작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룬 <그녀의 심청>까지 이렇게 5편의 만화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공유했다.

역사적 인물·사건의 재현 시 여성의 이야기가 가시화되지 않는 점, 사투리를 사용하는 주된 인물들이 불량배 혹은 평민·천민 등이라는 점 그리고 여성 캐릭터가 실제와 달리 수동적인 인물로 그려진 점 등이었다. 그는 이러한 의문과 불편함을 지적하면서도 지역문화예술작품이 많지 않음을 우려하며 기본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작품에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때의 ‘애정’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닌 ‘왜 이 작품이 중요한지’에 대해 언급하고 ‘어떠한 작품의 어떤 점이 문제인지 짚어내는 것’이기도 하다며 그래야 앞으로의 작품이 달라질 수 있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안에서 지역문화예술 작품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지역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사례를 살펴보았다.

가장 먼저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JAWA’에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발행한 뉴스레터 《주간자와 망·관·부》를 다루었다. 이 사례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없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와 같은 사회적 이슈부터 지역 여성작가 인터뷰, 지역 작품 리뷰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뉴스레터로 유의미하게 바라보았다고 했다. 그 다음으로는 광주에 위치한 ‘임동 전남방직·일신방직 공장’과 그곳에서 일하던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예술가들이 기록한 전시 《사건으로서의 장소》를 소개했다. 여기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와 여성가족재단의 협업을 통해 하나의 담론을 만들어냈다는 점에 주목하며 우리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그 밖에도 전북의 대표 축제 중 하나로 꼽히는 《전라예술제》, 최근 익산에서 열린 《전국 여류화가 100인 초청전》 등 각 지역의 문화예술행사 및 콘텐츠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지나쳐 왔거나 관심 두지 못했던 다양한 지역문화예술 작품의 존재를 떠올리게 됐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작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성평등의 관점이 왜 필요하며, 그러한 관점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더하기’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서로에 대한 ‘읽’이고 이 ‘읽’의 과정에서 쓰이는 가장 보편적인 도구는 ‘언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서 그 언어에 대한 해석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탓에 우리는 “그게 어떻게 평등이야?”, “그게 네가 이야기하는 평등이야?”, “뭐가 평등이야?” 같은 이야기를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마주하곤 한다. 이는 우리가 ‘평등’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각자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우리는 학습과 경험을 통해 그동안 쌓아 온 합의를 기반으로 공통의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혹은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의미는 달라진다.

그러므로 어떤 작품을 감상하고 그 생각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는 일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 결과물이 글일 때는 더욱 그렇다. 글을 쓰는 행위는 나의 내면을 마주하는 일이다. 그러한 탓에 글은 자신의 내면을 옅어 내려간 결과물이라 할 수 있고, 그 글을 공유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내보이는 일이다. 이렇게 각자의 내면을 내보이는 일은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인 서로에 대한 ‘읽’으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서로 다른 우리의 생각을 밝히고 전하는 일은 편을 나누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다른 우리가 공존하기 위한 ‘더하기’의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 펜워크숍

각자의 고민이 새로운 흐름으로

##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 펠워크숍 각자의 고민이 새로운 흐름으로

이 소 정

색색으로 물든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마냥 기뻐하기엔 유난히 가슴 아픈 소식이 많은 가을이었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전주환이 직장동료였던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SPC 제빵공장에서는 20대 초반의 여성 노동자가 열악한 근로 환경 탓에 사망했다. 여성가족부는 수많은 국민과 전문가, 여당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폐지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어쩌면 시대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기시감이 드는 2022년,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삶은 더 고립되기 쉬워졌다. 예상치 못한 슬픔 앞에서 일상은 의미 없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시기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지금 내 눈앞의 행복을 기꺼이 누리고, 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가을의 중턱인 10월 19일 수요일, 전북대학교 캠퍼스의 한 강의실에서 《2022 성평등 문화예술 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이하, 문화예술다리미)》 심화과정 '펠 워크숍'이 열렸다. 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아직은 물러나지 않았던 9월 초 무렵에 시작된 《문화예술다리미》 심화과정이 어느덧 중반을 지나 있었다. 참여자들은 그동안 시각, 영상, 문학, 공연 등 분야별 강의를 들었고, 성평등 시각으로 예술작품을 다시 보고 각자의 질문을 마주하며 고민을 발전시켜나갔다. 저마다 배우의 과정을 통과하고 겪어내는 동안 시간은 흘러, 곧 마지막 단계인 비평문을 쓰고 발표하는 과제만을 앞두고 있었다.

###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앉았다

참여자들과 멘토, 각 재단 실무자까지 포함하여 총 13명의 인원이 마주 보고 앉았다. 펠 워크숍의 강사는 송원 대표(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배우다컴퍼니)가 맡았다. 대부분의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자 전체가 만나는 것만으로도 귀한 자리였다. 송원 강사는 일방적인 강의 형식보다는 토론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첫 번째 활동은 누구나 알법한 속담에 빗대어 각자의 경험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약간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작은 말에도 웃음이 터졌다. 한자리에 모여 있지만 이곳에 오기 직전까지 일상의 풍경은 제각각이었다. 삶을 보살피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 최근 베이킹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베이킹 도구가 생각보다 값비싼 것을 깨닫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느꼈다는 사람, 얼마 전 한 살 반 조카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심정이었다는 이, 한바탕 바쁜 일이 지나고 나니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쉴 틈이 없었는데 오늘 워크숍에 나와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고 느꼈다는 사람도 있었다. 송원 강사는 각자가 지니고 온 이러한 감각들을 잘 풀어내 보자는 말로 워크숍의 문을 열었다.

#### 당신이 감상한 지역 문화예술작품을 소개해주세요

본격적인 시작과 함께 한 활동은 최근 감상한 지역 문화예술작품을 스케치북에 적고,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었다. 작품의 제목을 쓰고, 그 옆에 자신이 주관적으로 지은 부제도 적어보기로 했다. 한 참여자는 소설 『금파』(김해숙, 다산책방, 2022)를 소개하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부제를 붙였다. 이 소설의 제목인 ‘금파’는 실존 인물인 ‘허금파’이다. 그는 여성이 무대에 설 수 없던 구한말 시대에 독보적 소리꾼으로 활동한 여성 광대였다. 참여자는 이 소설을 읽고 ‘허금파’가 궁금해져 그의 흔적을 만나러 고창에 직접 가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극 <침부파일\_서식01\_이력서>(극단 배우다컴퍼니, 2022)를 소개한 참여자는 ‘존버’라는 부제를 붙였다. 연극을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예술인들이 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안타깝기도 해서 눈물을 쏟을 뻔했다는 감상평을 전했다.

《2022 전주문화재야행》(문화재청·전라북도·전주시 주최, 문화예술공작소 주관)을 소개한 참여자는 ‘2022년의 마당놀이’라는 부제를 붙였다. 한옥마을에서 펼쳐진 전통 음악공연은 기대했던 것보다 수준이 높았는데,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점은 공연을 즐기는 객석의 적극적인 분위기였다며 무대와 관객이 소통하며 상호작용하는 모습에 감탄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참여자들은 이외에도 각자 관람한 지역 문화예술작품의 소개와 더불어 요새 즐겨 보는 예술작품, 그 작품에서 감명 깊었던 점과 불편하거나 고민이 생겼던 지점까지 두루 이야기를 나누었다.

## 지역의 예술작품과 흥미롭게 본 작품 그리고 불편한 지점에 대해서

다음으로는 3~4명씩 조별로 모여 아래에 나열된 세 가지 질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약 20분 정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감상한 지역 문화예술작품은 무엇인가?

/

흥미롭게 본 문화예술작품은 무엇인가?

/

작품에서 불편함을 느꼈다면,  
아직 보지 않은 이에겐 어떤 당부의 말을 할 것인가?

한 조에서는 세 질문의 공통점으로 ‘모두 관점이 있다’는 점을 꼽았고, 차이점으로는 ‘세 가지 질문의 깊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요즘 예술작품의 소개를 보면서, 콘텐츠는 다양하지만 깊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아쉬웠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른 조에서는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경험과 애정이 지역 작품에 대한 고유한 관점을 만들어 낼 수 있음에 관해 이야기했고, 또 다른 조에서는 비평 안에 위의 세 가지 질문이 모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며, 차이점은 ‘비평가가 작품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민할 때 생길 것 같다고 했다.

조별로 토론했지만 결론이 통일되지 않거나 다르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 같은 조에서라도 누군가가 발표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의미를 덧붙이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 ‘비평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n개의 답변

이후 송원 강사는 웹진 《연극in》의 한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같은 질문에 대한 25명의 답변이 적혀있었다.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비평은 무엇을,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나요? 비평은 항상 창작자 편이어야 할까요?”

답변을 한 사람은 총 25명이고, 그중 14명은 비평가이자, 창작과 비평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 나머지 11명은 창작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었다. 《문화예술다리미》 참여자들은 25개의 답변을 돌아가며 모두 소리 내어 읽었다. 당연할지 모르지만 모든 답변이 제각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비슷해 보이기도, 또 전혀 달라 보이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예술비평에 대한 25개의 답변을 통해 비평이 하나의 정답으로 단일하게 정의될 수 없음과 개개인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아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송원 강사는 각자가 나름의 답을 가지고 비평을 해나갈 수 있고, 또는 비평을 해나가면서 정의를 찾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지역 내 예술비평의 현실

지역에서 다수의 연극을 만들고 문화기획을 하며 활발하게 활동 중인 창작자이기도 한 송원 강사는 지역에서 30여 편 넘게 작품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자기 경험을 나누며, 지역에 문화예술 비평이 부재한 현실을 이야기했다. 비평을 듣고 싶어도 들을 방법이 없었던 그는 공연을 관람한 자신의 가족에게

평가를 묻거나, 다른 배우의 지인들이 공연을 어떻게 봤는지 물어봄으로써 피드백을 얻는다고 했다. 반면에 서울 대학로에서 공연했을 때 다양한 비평을 받을 수 있어서 기쁘고 반가웠던 경험을 떠올리며, 지역에도 그렇게 활발한 비평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더욱더 바라게 되었다고 말했다.

송원 강사는 지역의 예술작품이 상당 부분 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관람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내는 장이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예술작품과 관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유기적 관계이므로 지역 예술비평의 생태계를 만드는 일은 지역의 예술작품이 변화해나갈 방향을 만들어 가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 성평등 시각은 왜 필요한가?

워크숍은 질문의 연속이었다. 성평등 시각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 ‘대한민국 성평등 가이드북’에 따른 성평등의 정의를 화면에 띄워 함께 봤다. 성평등이란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성평등 정책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흔히들 성평등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라 오해하지만, 성별을 막론하고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국가가 내린 정의에도 구체적으로 적혀있었다.

더불어 벡델 테스트(영화 내용에서의 성차별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테스트)와 관련한 짧은 영상도 시청했다.

여성 캐릭터가 활을 쏘는 모습이 나오는 <메리다와 마법의 숲>과 <헝거 게임> 개봉 이후 양궁 수업에 참여하는 여자아이들의 비율이 증가했다고 한다. 영화는 가상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지만, 이렇듯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술작품 또한 변화해야 하며, 이미 사회에 만연한 차별의 언어들을 예술작품 속에서 읽어내기 위해서는 성평등 시각이 필요하다.

### 여전히 풀리지 않은 현재 진행형 고민

매회 수업이 끝날 때마다 그룹 채팅방에는 참여자들의 후기가 올라왔다. 그중에서 가장 나누고 싶은 문장이나 핵심 단어, 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고민이 담긴 문장을 뽑아 나누었다. 한 참여자는 처음 성평등에 대해 들었을 때,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들었음을 고백했다. 여성주의적으로 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고민이 된다고 했다. 다른 참여자는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내는 지점을 이야기했다. 평등에 대한 감각과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하며, 주어진 틀을 깰 수 있는 것이야말로 예술의 전위적인 면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참여자는 ‘소수자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꺼냈다. 지역의 척박한 환경을 고려할 때 자원이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은 존재론적인 소수자성을 지닐 수 있음을 말했다.

다른 이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면서 참여자들은 다양한 고민을 나누었다. 당장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용기 내어 고민을 꺼냄으로써 같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함께 한 시간은 짧았지만, 고민의 여운은 길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 장면에서 이날 고민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답들은 결국 우리를 나아가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지역문화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문화예술다리미》 참여자들은 앞으로 지역예술작품을 관람한 뒤 각자의 관점으로 비평문을 작성하고 11월 16일 진행될 공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총 세 개의 조로 나누어 문학, 영상, 전시 중 각자 원하는 매체를 선택하고, 조별로 같은 작품을 보기로 했다.

문학 분야 작품은 제1회 고창신재효문학상 수상작인 고창 출신 김해숙 작가의 소설 『금과』이며, 영상 분야 작품은 전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최진영 감독의 영화 <태어나길 잘했어>, 전시는 전주문화재단에서 전주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 여성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인 《도래할 풍경 2022\_매일 매일 내일展》이다.

이날 송원 강사와 참여자들은 3시간에 걸쳐 비평과 성평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각자의 키워드가 서로 연결되고, 결을 달리하기도 하며, 얽히고설켜 표현되었다. 각자의 내면에서 생긴 질문들이 서로에게 가닿아 실마리를 얻고, 또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는 순간들이 워크숍을 통해 관찰되었다.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미간에 새겨지는 주름은 이들의 고민의 무게가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했지만, 그만큼 앞으로 이들이 어떤 성장의 과정을 거치며 어떤 시각을 기를 것인지 궁금하게 만들기도 했다. ‘문화예술다리미’ 참여자들의 성평등 문화예술비평이 지역문화예술계에 새로운 흐름과 변화를 끌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이들의 행보를 응원해 본다.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 공유회

서로를 통해 길을 만들어 가는 우리들

##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 공유회 서로를 통해 길을 만들어 가는 우리들

이 소 정

계절에 맞지 않게 포근한 날씨에 차라리 매서운 한파가 그리워지는 11월 16일 수요일,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이하, 문화예술다리미)》 심화과정 공유회가 사회혁신 전주, 오픈라운지 '땡땡'에서 열렸다. 참여자와 멘토, 협력 단체 관계자들이 모였고 전주 문화재단의 김선정 팀장이 사회를 맡았다. 스무 명이 둥그렇게 마주 앉아 돌아가며 각자의 소개를 나눈 후에 비평문 발표가 진행되었다. 작품 선정의 동기, 글을 쓰면서 마주했던 고민, 비평문을 완성하고 난 후에 남은 질문 등 미처 글로는 담지 못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마지막 회차이니만큼 《문화예술다리미》 심화과정에 대한 소감도 나누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가 느낀 감상을 나누며 앞으로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함께 상상해나갔다. 끝으로 이 과정을 완주한 참여자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는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이어지는 글을 통해 조금 더 자세한 그날의 대화와 풍경을 들여다보자.

《문화예술다리미》는 지난 9월부터 10월 초까지 매체별 전문가 강연을 들은 뒤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그룹별 쓰기 활동을 시작했다. 비평 작품은 전북 지역의 작품으로만 선정하였으며 문학과 영화, 전시 세 분야로 팀을 나누었다. 문학팀은 소설 『금과 : 조선의 마지막 소리』(김해숙, 다산책방, 2021)를 읽고, 영화팀은 영화 <태어나길 잘했어>(최진영 감독, 2022)를 보고, 전시팀은 《도래할 풍경 2022\_매일매일 내일展》(전주문화재단, 2022)을 관람한 후에 각각의 비평문을 작성했다. 협력 단체 중 한 곳인 '지식공동체 지지배배'에서 각 팀당 1명씩 함께했으며, 글쓰기 및 비평문 작성에 대한 전반적인 멘토링을 진행했다.

참여자 숫자만 놓고 보면 작년에 비해 적어졌지만 8명 중 6명의 참여자가 비평문을 완성하여 참여자 대비 수료자 비율은 작년과 비슷했다. 또한 올해에는 지역의 예술작품만을 선정해 비평했다는 점에서 의미도 남달랐다. 올해의 심화과정에서는 팀원들 간의 토론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비평문 또한 더 깊은 사유와 통찰을 담고 있었다는 평이 많았다.



## 소설 『금파 : 조선의 마지막 소리』

- 김해영, 지산 II 김은혜 멘토

김해영 참여자는 「소리꾼 허금파, 벽을 두드리다」라는 제목으로 비평문을 작성했다.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 비평은 소리꾼으로서 허금파가 구한말, 남성이 아니면 판소리꾼으로 인정받을 수 없던 그 시대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아야 했던 차별을 견디고 끝내 꿈을 이뤄내는 자기 주도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에 주목한다. 하지만 소설 후반부로 갈수록 남성 인물들과의 사랑 서사가 주를 이루고, ‘금파’가 자기 시련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성 인물들이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소리꾼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당당했던 ‘금파’의 모습이 사라져버림을 지적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소설책의 표지 일러스트가 지나치게 여성적인 매력을 강조한 전형적인 ‘미인’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현함과 동시에, 여성 인물에 대한 동시대적 감각을 담은 ‘시각 점검’이 필요함을 말한다. ‘금파’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롭게 재해석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이 작품이 진채선과 허금파의 뒤를 잇는 여성 판소리꾼들의 계보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었다.

지산(박진아) 참여자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여성 소리꾼 금파, 허금파」라는 제목으로 비평문을 작성했다. 실제로 소설을 읽고 나서는 판소리의 고장인 고창에 세 번이나 방문하기도 했다. 여전히 남아 있는 판소리 학당인 ‘동리정사’ 앞에서 2022년의 여성 판소리 버스킹을

보며 ‘금파’를 떠올려보기도 하고, ‘금파’가 힘들 때마다 걸었던 모양성 길을 따라 걸으면서 그의 고된 삶을 짐작해보기도 했다. 잡념, 독한 년, 미친년으로 불렸던 ‘금파’를 성차별 사회에서 반란의 길을 여는 여성 선배로 칭하고, 성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스스로 자기 삶을 사는 여성에게 이런 평가가 붙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스러운 이름이라고 했다.

등장인물 중 ‘무릇’의 짝사랑을 그린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상 그 행동이 현대의 스토킹 혹은 사이버불링(온라인 폭력)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포장했다는 것이다. 이는 남성 인물의 감정에 치중해 서술했기 때문이며, 예술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상기시켰다. 여러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금파’라는 선배 여성을 발견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미가 크라며 작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 영화 <태어나길 잘했어>

- 황채린, 성냥 II 최은영 멘토

황채린 참여자는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실존의 ‘틈’」이라는 제목으로 비평문을 작성했다. 전북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며, 전주에 사는 청년이자 여성인 ‘춘희’가 자신과 닮아 보였다고 했다. 본인 또한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희망과 힘을 갖지

못할 때나 처참함을 느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태어나길 잘했어”라고 말하는 이유가 궁금했다고 한다. 영화 속에서 찾아낸 실존의 조건 세 가지는 ‘원가족의 부재, 집의 부재,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관계의 부재’이다. 하지만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춘희’는 자기 존재를 긍정해나가고, 처음으로 자기만의 집을 구하고, 남자친구 ‘주황’과 ‘노숙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며 부재를 극복해나간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내면 아이를 통해서 고통을 직면하고 또 극복한다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서사가 상업적인 치료문화 내러티브와 비슷한 방식이어서 아쉬웠다고 말했다. 자기혐오가 질병이며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설득함으로써 오히려 그 안에 머물러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어서 공유회에 참석하지 못한 성냥 참여자의 비평은 최은영 멘토가 대신 나눠주었다. 성냥 참여자의 비평문은 「(어른이 된) 춘희에게 (아직은 어린) 춘희가」라는 제목의 편지였다. 성냥 참여자는 앞에서 황채린 참여자가 제기한 의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파고들었다. 내면의 아이를 꺼내서 화해하는 일종의 심리치료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는 항상 모든 잘못을 내면 아이와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극복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 들었다고 한다. 사회적 현상으로 보이는 이러한 서사는 오히려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은 아직 긍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주인공이 태어나길 잘했다고 선부르게 긍정함으로써 그 지점이 잘 해결되지 않은 채로 급하게 영화가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지역 감독이 지역을 배경으로 청년 여성의 이야기를 장편영화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문을 꺼내어 토론하고 함께 생각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최은영 멘토는 말했다.

### 전시 《매일 매일 내일展》

- 이은심, 정희정 II 최정 멘토

이은심 참여자는 「from. 매일, to.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비평문을 작성했다. 전시를 더 잘 경험하기 위해 두 번의 관람을 하면서 여성 예술가들의 작품을 마주하였다는 그는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불편함이었다고 고백했다. 이은심 참여자는 “창작과 현실 사이에서 중립 무진하는 여성 예술가들의 길고 고된 질문과 성찰”(전시 서문 중 일부)에 지극히 공감했으리라. 이은심 참여자는 전시장에서 잠시 눈을 감고 ‘이 예술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 작품을 만들었을까?’를 떠올렸을 때 자신의 과거 경험과 풀리지 않은 고민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걸 돌이켜 바라보는 일은 상당히 불편했고, 꺼내어 글로 옮기는 작업도 쉽지 않았지만,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일이기도 했다.

여성 노동자들을 대면한다는 생각으로 비평문을 써나갔다는 그는 비평문 안에서 작가들의 작품 하나하나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관찰하여 자신이 느끼고 발견한 지점들을 글로 옮겨내었다. 이 전시를 통해 스스로가 지금 공생하고 공존하며 생존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이제 여성의 성찰은 충분하므로 앞으로 도래할 풍경을 따뜻하게 마주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정희정 참여자는 「보이지 않는 노동과 보일 수 없는 목소리 사이의 유쾌한 횡단」이라는 제목으로 비평문을 작성했다. 전반적으로 전시 작품에서 느껴지는 정서가 여성의 그림자 노동이었고, 그 속에서 여성의 삶이 쉽지 않은 현실을 느꼈다고 말한다. 정희정 참여자는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관습의 틀을 새겨 넣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몸이 나를 넘어서서 말을 할 때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바로 여성들이 몸의 감각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일 것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현재라는 덜미에 붙잡히는 느낌이 들고, 이러한 생각도 기계처럼 반복된다며 너무나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팔복동 공장에서 천여 명의 여공들이 일하던 과거 그 시절에는 공장에서 연대가 생기고 뭉치고 폭발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무의식 아래로 작동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때때로 ‘나만 이려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며, 여전히 남아 있는 질문을 꺼내놓았다.

#### 지난 활동을 돌아보며 더 나은 길을 궁리하다

발표에 이어, 이번 교육 과정에 대한 소감을 나눴다. 참여자들은 이번 심화 과정에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이 좋았다는 의견을 말했고, 한 참여자는 얘기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감전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표현했다. 펜 워크숍을 통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공식적으로 주어지기도 했지만, 조별로 같은 작품을 비평한 덕분에 한 작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 대화를 통해 참여자와 참여자,

참여자와 멘토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배우고 사유를 확장해가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멘토의 역할이 단지 글쓰기에 대한 첨삭 혹은 일방적으로 지식을 나눠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민의 과정에 함께 하고 지지의 언어를 보탬으로써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편하게 꺼내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창작물인 예술작품을 자기 언어와 시각으로 해석하고 비평하는 과정에서 자기 검열의 혼란과 자기 직면의 고통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관계자들과 멘토들, 참여자들이 세심함을 발휘하여 서로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덕분에 참여자들이 비평문을 완성해내고 심화과정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작년에는 입문과정을, 올해에는 심화과정을 진행했는데 둘 다 매체별 강연 위주로 진행되어 크게 변별력을 느낄 수 없었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또한 작년에는 참여자가 18명이었는데 올해에는 8명으로 눈에 띄게 줄어들어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최 측에서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내년도에는 사업의 시기를 더 앞당기고 홍보나 프로그램 기획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가 함께 《문화예술다리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것에 감사함을 표했다. 6개의 문화재단,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전북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지식공동체 지지배배 관계자들이 펜 워크숍과 공유회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고, 참여자들의 고민과 사유의 과정에 함께하며 배움의 의지를 보여준 점이 이 과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도 했다.

《문화예술다리미》 1, 2기 참여자들을 기반으로 비평그룹을 시작해 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세 명의 멘토는 비평그룹의 적극적인 활동이 지역문화예술작품이 고립되지 않는 건전한 피드백 체계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꼭 높은 수준의 비평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지역의 예술작품을 보고 느낀 점을 성평등 시각으로 해석하여 글을 써내고 창작자와 다수의 시민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과정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창작자와 시민들에게 큰 존재감으로 가닿는 데에 혹여 실패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동료 발견하는 것은 지역에서 문화예술 성평등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치거나 고립되지 않고 길을 만들어 가는 방법이자 서로가 연결되는 기회이기도 할 것이다.

이 글을 읽은 분이라면 분명 문화예술과 성평등에 애정을 지녔을 것이라고 믿으며, 시간을 내어 이들의 비평문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그리고 머지않은 시일 내에 어디선가 접하게 될 이들의 문화예술 비평문을 함께 기다려주시라. 그것이 바로 성평등한 문화예술생태계를 만드는 이들의 곁에서 함께 걷는 연대의 방식일 것이다.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  
포스트-미투 시대,

전라북도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만들기

미투 이후, 우리는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는가

포스트-미투 시대,  
전라북도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만들기  
미투 이후, 우리는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 승 희

지난 11월 25일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포스트-미투 시대, 전라북도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만들기> 포럼이 열렸다. 포럼은 2018년 전북 연극계 미투 운동으로 문화예술계 내 가부장적 성희롱·성폭력의 민낯이 드러난 이후 현 상황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미투 운동 이후 5년여의 시간이 지난 현재 변한 것은 무엇이고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그동안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해 점검해보는 자리였다.

이는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생각해보는 과정이기도 했다. 포스트-미투 시대, 2018년 당시 들불처럼 피어올랐던 미투 운동을 되짚어보고 전라북도 문화예술계에 성평등 토양을 만들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일은 소수가 아닌 우리 모두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발걸음이자 당연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네 가지 주제로 엮어진 여덟 개의 이야기

전북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 전의령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총 4개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세부 주제 및 발표·토론자는 아래와 같다.

1. 미학적인 것의 분화: 문화예술계 ‘성폭력’ 고발과 예술다움의 정의

- 발표자: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허윤 교수
- 토론자: 전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연주 교수

/

2. 전북 연극계 미투 이후 5년: 우리에게 남은 것들

- 발표자: 전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진명숙 교수
- 토론자: 전북문화관광재단 구혜경 기획홍보팀장

/

3. 미투 이후 지역문화재단의 변화와 과제

- 발표자: 완주문화재단 정책기획팀 신인혜
- 토론자: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송원 대표

/

4. 전북 성평등 네트워크 사업 ‘문화예술다리미’를 돌아보다

- 발표자: 팟캐스트 살롱드전북 박진아
- 토론자: 전북도민일보 김미진 기자

## 미학적인 것의 분화

### : 문화예술계 ‘성폭력’ 고발과 예술다움의 정의

「82년생 김지영」 그리고 새로운 흐름과

그에 걸맞은 미학적 관점의 필요성 제기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허윤 교수의 발표는 줌(ZOOM)으로 진행되었다. ‘미학적인 것의 분화 : 문화예술계 ‘성폭력’ 고발과 예술다움의 정의’라는 다소 크게 느껴지는 주제의 이야기는 크게 미적 판단 기준,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김지영’이라는 벡터, 해방된 독자에서 저항하는 독자로, 새로운 흐름과 새로운 미학, 예술다움의 정의 이렇게 다섯 가지 이야기로 펼쳐졌다. 먼저 미적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는 미학에서 ‘미적 판단은 궁극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로부터 초월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순수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2018년 ‘미투 고발’을 기점으로 젠더 무감적(Gender-blind)인 공간으로 여겨졌던 연극과 문학 분야에서 전반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문화예술 작품을 페미니즘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다시보기(re-vision)는 페미니스트 비평의 첫 단계임을 밝히며 소설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문화예술계의 큰 방향 전환을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는 『82년생 김지영』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물론 많은 사람의 공감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미학 또는 예술성을 기반

으로 한 평가에서 이 작품은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음과 함께 여성을 희생자로만 그려낸 점에서 이 작품이 페미니즘 소설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후 그의 이야기는 해방된 독자에서 저항하는 독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와 보이콧 문화와 같이 독자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문화가 생겨났음을 언급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로맨스 대신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새로운 흐름, 새로운 미학’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지점 중 하나로 ‘페미니즘’과 ‘퀴어’가 문화예술계의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허윤 교수는 결론으로 새로운 흐름에 발맞추어 미학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수용했던 문화예술을 다시 보고 현재의 흐름에 맞게 바라볼 수 기준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해석되었다. 그는 방법론적인 대안으로 ‘벡델 테스트(Bechdel test)<sup>1)</sup>’를 예시로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300만명 이상의 관객이 본 영화 중에서 이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는 단 1편뿐이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더불어 SNS상에서 화제가 되었던 여성서사 논쟁과 페미니즘 미학의 연장선에서 등장하고 있는 ‘무해한 콘텐츠’에 대한 설명과 함께 희생자에게 가해진 폭력을 재현하는 방식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허윤 교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문제의식은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앞으로 어떤 실천으로 이어져야

1) 벡델 테스트(Bechdel test) : 영화 산업에 있어서의 성차별, 특히 여성이 적게 나타나는 현상을 지적하기 위해 고안된 테스트로 1985년 엘리슨 벡델의 <경계해야 할 레즈비언>에서 처음으로 등장해 ‘벡델-윌리스 테스트’라고 하기도 한다. (위키백과 참조)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예술다움의 정의’를 어떻게 결론짓고 실천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했다. 그는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는 여성성에 대해 어떻게 고민을 해야 할 것인가’와 ‘여성적인 것을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앞으로 이러한 질문들이 지역과 문화예술계 안에서 더욱 많아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전했다.

### 자율성을 획득한 예술, 예술성과 정치성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을까?

허윤 교수의 발표에 이어 진행된 전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언주 교수의 토론은 ‘참여예술’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됐다. 박언주 교수는 허윤 교수의 발표를 보며 20세기 중반 유럽에서 벌어진 참여예술 논쟁이 떠올랐다고 이야기하며 세 가지 질문을 건넸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술이 대중화되어 문화산업 구조 속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참여예술이 애초에 의도한 정치성마저 모두 잃는다고 비판하는 아도르노<sup>2)</sup>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예술이 상품화·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여성 서사만의 정치적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해 물었다.

두 번째로는 리얼리즘에 입각한 켄 로치의 영화나 『82년생 김지영』과 같은 예술 형식은 아도르노가 주장하는 자율성을 획득한 예술과 달리 어떤 방식으로 예술성과 정치성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다.

마지막은 백텔 테스트나 여성 서사 그래프를 넘어서서 페미니즘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예술의 형식이나 스타일 또는 장르가 존재하는지 만약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을 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발표자인 허윤 교수는 개별 질문보다는 전체적 맥락으로 답변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는 폭력의 재현 혹은 상품화 문제로 돌아가 여성의 신체가 폭력적으로 재현되는 방식에 대해 페미니즘 시각을 가진 독자 및 관객들로부터 활발한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있음을 전했다.

또한 『82년생 김지영』이 페미니즘 미학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페미니즘적 텍스트가 되기에 여성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 텍스트를 페미니즘적으로 만드는 것은 독자 혹은 관객의 몫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이러한 독자의 이야기들이 비평의 가능성을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전에는 페미니즘 비평이 학술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대중적 차원에서의 문화비평으로 나아가고 있고, 현재 하나의 장르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82년생 김지영』이 비평의 장을 넓히는 역할을 했음을 전했다.

또한 그는 ‘각 장르에서 페미니즘적인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페미니즘 예술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장르와 텍스트들이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이 모색되어야 함을 이야기했다. 이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존 예술의 형식에서 멈추지 않고 ‘다르게 만들기’를 고민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페미니즘의 문학적 차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밝혔다.

156 2) 철학, 사회학, 미학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연구 활동을 한 독일의 사상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표자로 활약하며, 비판 이론, '부정적 변증법'을 전개하고, 사회, 문화, 과학 연구의 인간 소외 및 물상화 등을 예리하게 비판하였다. (출처: 2009년 「철학사전」)

## 전북 연극계 미투 이후 5년 : 우리에게 남은 것들

### 연대라는 이름의 무게와 어려움 그리고 한계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전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진명숙 교수의 발표는 ‘전북 연극계 미투 이후 5년: 우리에게 남은 것들’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그는 미투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문화예술인의 60% 이상이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에서 왜 이 연구가 필요하며, 왜 자신이 이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미투 운동의 연대 양상이 크게 미투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력자, 시민 연대체, 피해 당사자 간의 연대체로 나뉜다며 연대의 어려움으로는 조력자의 피아<sup>3)</sup> 구분이 명료하지 않음과 연대체 안에서의 보안 문제로 인한 2차 피해 혹은 가해의 우려를 이야기했다.

그 다음으로는 ‘절반의 노력’이라는 키워드로 전북연극협회의 상황을 들여다보았다. 전북연극협회에서는 미투 이후 협회에서 가해자를 제명하는 등 즉각적으로 발 빠른 대처를 하였고 협회 정관에 ‘영구 제명’ 조항과 성폭력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제도적인 변화를 만들어 냈으며, 가해자가 처벌되는 과정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노력’이라 이야기하는 이유로 가해자 편에서 섰던 조력자들이 잠시 주춤했다 활동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이후 성평등 문제에 대한 담론장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짚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미투 당사자들의 연대 조직이 성평등 가치를 내건 페미니즘 기반 문화예술단체로 성장해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이하 ‘전여문’)가 꾸려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 ‘전여문’에서 3회째 진행하고 있는 《페미니즘 예술제》, 전북권 6개 문화재단과 기관·단체가 함께 하는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 역시 가시화된 변화 중 하나였다.

이러한 변화는 미투 운동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성평등 문화확산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디자인 자리’에서 진행한 ‘성평등 문화확산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전북권 문화재단과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며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됨에 따라 2021년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현재는 성평등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동적인 참여의 형태로 시작된 모임이 자발적인 주최 형태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진명숙 교수는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의 의의로 도내 6개 재단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의 가시화와 재단 내 성평등 문화예술정책의 중요성 인식 그리고 문화예술 부문의 ‘젠더 거버넌스’ 실천을 이야기했다. 덧붙여 그는 예술인 인터뷰 과정에서 미투 운동이 연극계에서만 일어난 것은 다른 분야에서 이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더 심각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들이 용기조차 낼 수 없기 때문

3) 그와 나 또는 저편과 이편을 아울러 이르는 말.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의 침묵을 ‘용기 없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는 피해자가 목소리를 냈을 때 그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보호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적 상황을 이야기했다. 진명숙 교수는 이런 상황을 바꾸어나가기 위해 성평등 문제에 대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큼 이를 거부하고 침묵하는 목소리도 듣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 미투 이후 5년, 전북 문화예술 현장을 들여다보다

‘전북 연극계 미투 이후 5년’에 관한 발표에 이은 전북문화관광재단 구혜경 기획홍보팀장의 토론은 지난 11월 16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하 ‘전북문화관광재단’) 청사 앞에서 열린 ‘#ME TOO 가해자 방조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규탄’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으로 화두를 열었다. 회견의 내용은 2018년 전북 연극계 미투 사건의 가해자가 무죄 선고를 받아 학교로 복직했고 2022년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의 연출을 맡은 사실을 확인하며 전북문화관광재단이 미투 가해자의 문화예술계 재기를 방조했음을 지적했다.

미투 이후 5년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최근에 일어난 이슈를 공유하는 일은 가장 필요한 일 중 하나이기에 그가 왜 이 이야기로 토론을 시작했는지 쉬이 납득할 수 있었다. 구혜경 팀장은 이를 통해 우리가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구조 안에 있음을

전하고자 했다. 이어서 성평등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인 만큼 가해자나 가해 조력자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문화예술생태계 안에서 조력자의 역할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고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를 첫 번째 질문으로 가져왔다.

두 번째로는 현재 진행형인 연구에 이은 후속 연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하고자 하는지, 앞으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이어진 세 번째 질문은 지역문화재단은 서발턴(Subaltern)<sup>4)</sup> 여성의 목소리를 굴절시키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발표자 진명숙 교수는 가해자와 조력자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어려움이 많았음을 밝혔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인터뷰에 응했을 때 그들의 주장과 의견을 과연 객관적으로 정리해 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는 솔직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이었던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관해서는 피해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가부장적 시스템을 점검하고, 드러나지 않은 다른 피해 여성들을 만나 연구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고자 하나 피해 당사자들과의 만남과 연결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서발턴 여성의 목소리를 굴절시키지 않기 위한 지역문화재단의 노력으로는 ‘바로 지금 개선해야 한다’는 짙막하지만 묵직한 답변으로 문화예술계 전방의 각성이 먼저 일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했다.

4) 서발턴(Subaltern): 집단 이외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며 이로부터 파생된 하층민, 하위주체, 종속계급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통 여성이나 노동자, 이주민과 같이 권력의 중심에서 배제된 존재들을 뜻하며 여기서는 피해자를 뜻한다.

## 미투 이후 지역문화재단의 변화와 과제

“우리는 지역에서 행복하게 오래 작업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완주문화재단 정책기획팀 신인혜 씨는 2019년 성평등 문화확산 네트워크 지원사업 중 전북포럼에 참여했던 예술인이 이야기한 문장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완주문화재단에 소속된 그는 이 문장을 마주하고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재단 입장에서 ‘무엇이 이들을 지역에서 행복하게 오래 작업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가?’ 묻게 되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의 발표는 앞선 질문을 구체화시킨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세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평등 관점에서 전라북도 미투 운동 당시 지역문화재단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둘째, 미투 이후 5년이 지난 현재 문화재단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셋째, 성평등한 지역문화예술계를 만들고 창작 환경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 재단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전라북도 미투 운동 당시,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대응은 어떠했는가?’를 묻는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그는 2018년 전라북도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이 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언론을 통해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이야기했다.

피해 당사자가 많은 것을 감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을 택한

이유는 지역문화예술계의 폐쇄성과 견고한 수직적 권력 구조 때문이었다며 그 예로 지역문화예술계의 촘촘한 네트워크와 연결성,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예술인 혹은 원로 예술인으로부터 호명 및 발탁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을 짚었다.

2018년 전라북도 미투 운동은 ‘권력형 성폭력에 저항한 운동’인 동시에 ‘지역문화예술계 성평등 의식 촉구를 위한 운동’이라 할 수 있는데 신인혜 씨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 중 하나가 ‘시기’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이 2016년에 시작되었지만 지역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난 2018년까지 전북문화예술계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재단 역시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는 아니겠지’하는, 중요한 이슈를 중앙의 문제 혹은 타 지역의 일로 구분지어 생각한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는 ‘안전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문화예술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직’임을 표방하는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의견이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미투 이후 5년이 지난 현재 문화재단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묻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갔다.

미투 다음 해인 2019년부터 예술인, 학계, 문화재단이 다 같이 모여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지역 포럼’을 진행했다. 2020년에는 5개 문화재단과 여성문화예술인단체가 모여 ‘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준비 모임’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성평등한 지역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제를 도출했다. 그 과제는 지역 내 성평등 문화확산과

성평등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그리고 성차별·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근절 선언을 통해 재단의 역할을 명확히 할 것과 지원사업에 성평등 가치 지향을 반영하고 문화재단 운영 및 전체 사업으로 성평등 정책을 확장하는 것, 전북 문화예술계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논의체계 마련과 협력사업 추진 등이었음을 밝혔다.

미투 이후 재단의 변화를 가늠하는 지표로 신인혜 씨는 2020년 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준비모임에서 진행된 ‘2018~2020 전북권 문화재단 예술인창작지원사업 심의위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1~2022년 예술인창작지원 심의위원 구성 변화와 재단 내 성평등 정책·규정 도입 여부를 살펴보았다.

심의위원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이전 조사와 같이 특정 성(남성) 및 연령(50~60대) 쏠림 현상이 여전했으며 활동 분야의 경우 시각·공연 예술 분야 비중이 높았으나 타 분야의 심의위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다양성이 확보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성평등 규정과 관련해서는 전북권 6개 문화재단 중 4곳이 관련 규정이 부재하고 성평등위원회 역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곳은 단 한 곳 뿐이었으나 반가운 것은 재단 내 성평등 인식확산을 위한 자체 예산이 대부분 편성되어 있었고 한 곳의 경우 정식 사업비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성평등한 지역문화예술계를 만들고 창작 환경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 재단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었다. 신인혜 씨는 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 전반에 걸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재단 내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성평등위원회를 조직 및 운영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을 위한 지역연계체계 마련을 재단이 할 수 있는 노력으로 꼽았다.

“우리는 지역에서 행복하게 오래 작업하고 싶습니다.”로 시작된 그의 발표는 예술인들이 “우리는 지역에서 행복하게 오래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마무리되었다.

### 미투 5년, 가해자의 조용한 복귀,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송원은 ‘가해자가 창작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문장으로 토론문을 시작했다. 가해자와 조력자들이 반성과 쇄신없이 공적자금과 지원금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조용한 복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문화예술계에서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 보조금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고 대부분의 보조금을 기획·지원·집행하는 문화재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함을 이야기했다. 이에 따라 재단은 단순 지원 역할이 아닌 보조금의 흐름을 들여다보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지원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보조금 지원 이후 관리·감독은 물론 환류의 영역까지 업무의 영역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재 지역문화재단 이사진의 성비 불균형과 세대별 다양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미투 운동 이후 지역문화재단이 '성평등' 아젠다를 수면 위로 끌어내 정책에 녹여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희망적이라는 생각도 밝혔다. 다만, 한편에선 이러한 변화를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당면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전 토론자의 경우 발표자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송원의 경우 제언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역문화재단의 현실과 지역문화예술계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짚어냈다. 그는 지역문화재단에서 진정으로 성평등하고 성폭력이 없는 지역문화예술계를 지향한다면 현재의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 노력의 성패 여부는 디테일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그 디테일로 보조금 지원 단체의 오프라인 성평등 교육 필수 이수와 획일화된 예술 분야에 따른 지원사업 방식의 전환, 재단 내 인권 담당자 및 고충처리 담당관과 같은 인력 배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예술인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전하며 이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더 나은 예술 현장'의 모색에 있음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때의 '더 나은'의 의미는 안전이 담보된, 노력한 만큼의 생계를 지속할 수 있는,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현장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 전북 성평등 네트워크 사업 '문화예술다리미'를 돌아보다

###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를 위한 세 가지 제언

이번 포럼의 네 번째 주제는 '전북 성평등 네트워크 사업 문화예술다리미를 돌아보다였다.' 이 발표는 여성주의 팟캐스트 '살롱드전북'을 진행하며 2021-2022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에 모두 참여한 박진아 씨가 맡았다. 그가 지난 2018년부터 제작하고 있는 '살롱드전북'은 전북지역 여성주의 팟캐스트 방송으로 지역 여성 의제 및 성평등 이슈 발굴과 실천 활동 등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겸하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수동적인 참여자로 임했으나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며 그가 경험했던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문화예술다리미'는 지역문화예술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적과

성평등 비평 담론이라는 뚜렷한 가치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작품을 비평하는 그룹 양성이라는 명확한 청사진이 만난 결과였다. 그는 2021년의 입문과정과 2022년 심화과정을 비교·분석하여 각각의 교육과정과 참여자 특징, 참여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과 집중이라 할 수 있었다. 입문과정이었던 2021년에는 참여자 각자가 다양한 작품을 보고 한 편의 비평문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심화과정이었던 올해는 그룹별 활동을 통해 같은 작품을 감상하고 함께 이야기하며 질문을 찾고 멘토와의 소통을 통해 글을 다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박진아 씨는 지난 2년간의 과정을 돌아보며 개인적인 소회와 고민을 공유했다. 이어서 그는 문화예술다리미의 입문과정과 심화과정의 차별화와 문화예술작품에 대한 참여자들이 논의하고 사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비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평그룹 조성 및 지원방안 구축을 제안했다.

#### 반갑고 감사하고 뿌듯하지만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계속'

마지막 발언자이자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북도민일보 김미진 기자는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먼저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소식을 접하고 감사

한 마음이 들었다고 전하며 2018년 전북 미투 운동과 '문화예술다리미' 탄생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 짚어 주었다. '비평이라는 버거움과 쓰기의 어려움'에 크게 공감하며 성평등 시각을 견지한 글쓰기는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고 '문화예술다리미'가 현재의 모습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역 내 지속적이고 제대로 된 문화예술 비평 활동이 이어지고 다양한 형태의 비평그룹이 존재하기 위해서 입문과정의 양적 확대와 심화과정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박진아 씨의 의견에 동의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문제도 짚어 주었다. 무엇보다 그는 이 활동의 경험이 부디 개인적 경험에 머물지 않고 불균형으로 점철된 삶을 여러 각도에서 지속적으로 고찰하며 힘을 쌓아가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포스트-미투시대, 전라북도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만들기>포럼은 2018년 전라북도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이후 5년의 시간을 돌아보는 자리로 이러한 과정의 시작점은 '성폭력'에 대한 고발로부터 비롯되었으나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구축에 있음을 생각하게 했다.

'미투 이후 지역문화재단의 변화와 과제'를 살펴보았던 신인혜 씨의 발표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더 많이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목적은 송원 대표의 이야기처럼 피해자를 위한 배려나 미투 이후 방어적 소모전이 아닌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구축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예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지역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2  
0  
2  
2  
완  
주  
문  
화  
원  
탁  
회  
의  
기  
록

공유·교류원탁회의

알록달록 네 가지 주제로  
함께 만들어가는 완주문화원탁회의

## 알록달록 네 가지 주제로 함께 만들어가는 완주문화원탁회의

### 이 승 희

2022년을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12월 26일, 올해의 완주문화원탁회의를 마무리하는 ‘공유·교류 원탁회의’가 진행되었다. ‘완주문화원탁회의’는 문화자치 생태계 조성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목적으로 다양한 주제들이 동그란 테이블에 둘러앉듯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다.

작년에 이어 2년째 진행된 완주문화원탁회의는 올해 문화예술기관 시설과 문화기획자·활동가, 문화예술 성평등, 장애인문화예술 이렇게 총 4가지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2022년 활동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는 각각의 원탁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었고, 어떠한 활동이 진행되었는지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문화기획자·활동가 원탁회의에서는 전스비주얼랩 전별 대표와 엄마의 방학 김지영 대표가, 장애인문화예술 원탁회의는 완주군장애인복지관 박순천 평생교육팀장과 예수재활원 이승철 원장이, 문화예술 성평등 원탁회의는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송원 대표와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최유정, 문화예술기관·시설 원탁회의에서는 완주

미디어센터 김귀정 팀장과 완주풍류학교 정나리 홍보팀장이 각각 발표와 제안을 맡았다. 각 원탁회의별로 1인이 발표를 하고 또 다른 1인이 발표와 관련한 제안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번 공유·교류 원탁회의는 원탁회의별 활동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원탁회의 참여자들이 상호 교차하는 의제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었다.

### 느슨한 연대의 문화기획자·활동가 원탁회의 우리끼리 불평불만은 그만! 합리적인 평가 기준 필요!

가장 먼저 ‘문화기획자·활동가 원탁회의’에 관한 이야기를 전스비주얼랩 전별 대표의 발표를 통해 들어보았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문화기획자·활동가들이 모인 ‘문화기획자·활동가 원탁회의’는 각자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아이디어와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

2022년 ‘문화기획자·활동가 원탁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면 모임을 가진 만큼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해 참여자들이 지닌 문화예술현장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연스럽게 그동안 활동을 진행하면서 마주했던 어려움과 힘듦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원탁회의 참여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각자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자생력’이 필요하다는 결론과 함께 내년에는 그 가능성을 실험해보는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아도 좋겠다는 활동 계획까지 나누었다.

그 밖에도 ‘문화기획자·활동가 원탁회의’에서는 문화예술의 산업화 혹은 상업화를 우려하는 이야기와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잠잠했던 정량적 평가 잣대가 거리두기 해제 이후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일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느라 정작 문화소외계층이 되어 버린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거론되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내년에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면 문화기획자·활동가를 위한 문화기획을 해보아도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문화기획자·활동가 원탁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이야기 중 우리가 가장 집중할 만한 이야기는 문화예술 활동 평가에 관한 것이었다. 전별 대표의 발표에 이어 제안을 맡은 엄마의 방학 김지영 대표 역시 평가에 관한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두 사람 모두 현재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정량적 평가로는 문화예술이 가진 잠재적 가치를 담을 수 없으므로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사회적 가치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평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변화 지점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문화예술이 실제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등에 주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더 중요한 가치를 고려한 제대로 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동안의 평가 기조에 변화를 주는 방향도 이야기했다. 말 그대로 평가를 하기보다 사업에 참여한 주체들이 만나 각자의 역할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경험한 바를 공유하여 그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 순환하고 환류하게 하는 것이 평가의 기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간의 ‘문화기획자·활동가 원탁회의’를 돌아보자면 2021년에는 서로에 대한 앎을 위한 시간이었고, 2022년에는 그 앎에 대한 심화 혹은 확장과 느슨한 연대의 시간이었다. 내년에는 그동안 축적한 서로에 대한 앎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동의 활동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문화예술 원탁회의 당사자가 스스로 삶 전체를 구상할 수 있게

‘장애인문화예술 원탁회의’의 발표를 맡은 완주군장애인복지관 박순천 팀장은 ‘장애인문화예술 원탁회의’가 지역 내 장애인복지기관·시설 관계자들이 모여 ‘완주형 장애인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임을 밝히고,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완주군장애인복지관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장애인문화예술 원탁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최근 장애인문화예술 분야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그간 완주군 내에서 어떠한 활동이 있었는지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다양한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주목되는 지점은 장애인문화예술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기존의 장애인문화예술 혹은 지원이 복지의 차원에서 치료와 재활 즉 ‘단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찾아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복지서비스 또한 시스템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장애인이 재활 혹은 자립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했다면 이제는 문화예술 향유를 넘어 작품을 창작하고, 전문 문화예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꿈을 지원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장애인이라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보통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이 설계한 일련의 과정 안에서 좋은 하루를 보내게 하는 데 의의를 두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사회의 일원이자 구성원이 되는 것만이 아닌 장애인 또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아실현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거나 원하는 것을 직접 선택하고 그에 따라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있었다. 그러므로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의 의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다른 점을 찾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공통점을 찾고, 장애인 또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순천 팀장은 완주군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진, 미술, 통합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변화가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박순천 팀장의 발표에 이어 제안을 맡은 예술재활원 이승철 원장은 ‘장애인에게 문화예술 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에 대한 답으로 비장애인에게 그러하듯 장애인에게도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문화예술이 삶 속에 존재함을 이야기했다.

예술재활원에서는 풍물, 미술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으로 당사자의 열정과 이를 지지하는 교사 그리고 예산을 꼽았다. 이승철 원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 시작되고 지속될 수 있는 다양한 창작공간 및 소통의 공간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이 갖춰진다면 장애인들이 다양한 전시 및 무대를 경험하며 충분히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이 되기도 하지만 창작의 주체가 되고 더 나아가 삶의 주체가 되어 자신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 발걸음에 동참하고 나아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 문화예술 성평등 원탁회의 지역 내 성평등 문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다

‘문화예술 성평등 원탁회의’의 발표를 맡은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송원 대표는 ‘성평등 문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했다. 성평등 문화는 문화예술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분야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주제임을 짚으며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에서 진행된 ‘문화예술다리미’ 사업을 중심으로 2018년 전북 미투운동 이후 지적된 문제와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2018년 미투 이후 불공정한 창작생태계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 문화예술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게 되었다며 지원사업이 이러한 구조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문화재단의 다양한 지원사업 시스템을 성평등 관점에서 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히며, 앞으로 지역 내에서 이러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더불어 송원 대표는 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예술작품에 문제를 제기하는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러한 기반 위에 다양한 고민과 생각이 모이면서 연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가 조직되고 협력사업으로 성평등 문화예술 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차별의 관점에서 성평등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 원탁회의 논의가 앞으로 성평등 뿐 아니라 다양한 차별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이는 성평등이 다양한 차별에 맞서는 시작점으로 차별 없는 문화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었다.

‘문화예술 성평등 원탁회의’의 제안을 맡은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최유정 씨는 다가오는 2023년에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꾸준히 다양한 주체들과 만나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실행에 옮기는 시도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양한 주체들에게 동행을 제안했다.

## 협력의 시작, 문화예술기관·시설 원탁회의

### 완주문화예술기관·시설의 소식을 한눈에 <안녕! 완주문화>

‘문화예술기관·시설 원탁회의’에 대한 이야기는 완주미디어센터 김귀정 팀장의 발표로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그는 ‘문화예술기관·시설 원탁회의’에서는 어떠한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전개하기보다는 ‘올 한해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가 중요했다고 전했다.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기관·시설 담당자가 모인 ‘문화예술기관·시설 원탁회의’에서는 크게 완주군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 정보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였고 그중에서도 ‘기관·시설에서 진행하는 활동들을 어떻게

환류할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였다. 여러 논의 끝에 '완주문화예술 통합 모바일 매거진 <안녕! 완주문화>'를 함께 만들기 시작했는데, 제작 주체가 누구인지,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은 어떠한지, 이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지 등 <안녕! 완주문화>에 대한 A to Z을 공유해 이해를 높였다. 그리고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간의 성과와 현황에 대한 홍보도 잊지 않고 전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무한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청했다.

'문화예술기관·시설 원탁회의'의 제안을 맡은 완주풍류학교 정나리 팀장은 참여 시설의 입장에서 <안녕! 완주문화>가 지역민에게 사업을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 외에도 문화예술기관·시설·단체 간 활동을 공유하는 역할을 했다며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지속성에 관해 이야기했다.

2021년부터 진행된 '완주문화원탁회의'는 올해로 2년차 활동을 마무리했고, 2023년이 되는 내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자치 생태계 조성 and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조금은 거대한 목적으로 '완주문화원탁회의'는 주민과 문화예술인을 만나왔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하지만 모든 일의 시작은 만남과 대화 그리고 앞에서 비웃음을 떠올리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내년에는 '완주문화원탁회의'가 어떤 주제로 함께하게 될 것인지, 어떤 활동으로 깊이를 더해갈지, 어떤 행보로 영역을 확장해나갈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이 기반이 되어 어떤 멋진 일이 시작될지 기대가 된다.



**발행인** 유희태  
**발행처** (재)완주문화재단  
**발행일** 2022. 12

**총괄** 이상덕  
**책임** 송은정  
**기획** 정책기획팀 이은경 | 신인혜  
**기록** 이승희 | 이소정  
**진행·편집** 신인혜  
**디자인** 디자인시선 이지숙

**주소**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연락처** 063-262-3955  
**홈페이지** [www.wfac.or.kr](http://www.wfac.or.kr)

© 이승희, 이소정, 완주문화재단

본 책에 실린 글과 사진, 이미지는 저작권자와 (재)완주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완주문화재단의 : 연결 , 그리고 함께



완주문화재단  
Wang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완주군  
WANJUGUN